

開寶藏의 修訂에 대한 연구

- 廣弘明集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rrection of Gaebojang

- With Reference to *Gwangmyunghongjib* -

柳 富 鉉 (Yoo, Boo-Hyun)*

◁ 목 차 ▷

- | | |
|-----------------------|----------------------|
| 1. 서 언 | 4. 開寶藏 廣弘明集의 再修訂된 내용 |
| 2. 開寶藏 廣弘明集의 修訂된 내용 A | 5. 결 언 |
| 3. 開寶藏 廣弘明集의 修訂된 내용 B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광흥명집 제7, 14, 15, 16, 17, 18, 19, 21, 22, 24, 25, 26, 27권의 초조장본·재조장본·조성장본을 대조하여 이들 판본의 바탕이 되었던 개보장본의 수정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조장본·조성장본에는 동일하게 수정된 상태로 되어 있지만, 초조장본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것은 초조장본이 ‘개보장 원본’의 상태가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재조장본·조성장본에는 동일하게 수정된 상태로 되어 있고, 초조장본에는 재조장본·조성장본과 다른 상태로 수정되어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것은 초조장본이 ‘개보장 원본’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초조장본·재조장본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래의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조성장본에는 수정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이것은 조성장본에는 ‘개보장 재수정본’의 상태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광흥명집의 개보장본에는 ‘개보장 원본’, ‘개보장 수정본’, ‘개보장 재수정본’이 있었고, 초조장본의 바탕이 된 것은 ‘개보장 원본’이고, 재조장본의 바탕이 된 것은 ‘개보장 수정본’이며, 조성장본의 바탕이 된 것은 ‘개보장 재수정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要語: 광흥명집, 개보장, 재조장, 조성장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boohyun@daejin.ac.kr)

접수일: 2017년 6월 13일 최초심사일: 2017년 6월 15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20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rrections of Gaebojang, which has been the basis of the panbon by comparing with the volumes 7, 14, 15, 16, 17, 18, 19, 21, 22, 24, 25, 26, 27 of *Gwangmyunghongjib*. The result is as in the following.

Firstly, it is same like in Jaejojangbon · Josungjangbon with the same and corrected condition, but it is investigated that it is in Chojojangbon as an original one without any corrections. It is estimated that Chojojangbon included 'the first Gaebojang' as it is.

Secondly, it is same like in Jaejojangbon · Josungjangbon with the same and corrected condition and it is investigated that it is in Chojojangbon as a different corrected condition unlike Jaejojangbon · Josungjangbon. It turns out that Chojojangbon got corrections on the basis of 'the original of Gaebojang'.

Thirdly, it is in Jaejojangbon · Josungjangbon as the uncorrected condition and the same like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but it is investigated that it is corrected one in Josungjangbon. It is thought that 'recorrection of Gaebojang' was embraced in Josungjangbon.

Finally, with the above analyses, the study shows that there were 'the first Gaebojang', 'the correction of Gaebojang', and 'the recorrection of Gaebojang' in the Gaebojangbon of *Gwangmyunghongjib*. And further, it came out that 'the first Gaebojang' was a basis of Chojojangbon and 'the correction of Gaebojang' was a basis of Jaejojangbon, and 'the recorrection of Gaebojang' was a basis of Josungjangbon.

Key words: *Gwangmyunghongjib*, Gaebojang, Jaejojang, Josungjang

1. 서 언

주지하듯이 初雕藏・再雕藏・趙城藏은 기본적으로 開寶藏을 저본으로 해서 간행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학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반면 개보장의 수정과 판본에 대해서는 定論으로 인정될만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매우 낮은 상태이다.

開寶藏은 宋代 開寶 4년(971)부터 太平興國 8년(983)까지 완성된 本藏과 이후 지속적으로 간행된 續刊을 포함한 北宋官版大藏經을 일컫는 것이다. 개보장의 本藏 480帙은 開寶 4년(971) 益州(지금의 四川省 成都)에서 開元錄의 入藏錄에 의거하여 編次된 寫本 大藏經을 底本으로 하여 그 雕造가 시작되어 太平興國 8년(983)에 완료되었다. 이 때 刻成된 經판은 開元錄에 準據된 大藏의 1,076部 5,048卷 480帙에 해당되는 13萬餘板이었고, 同年에 開封의 印經院에 안치되어 印刷・流通되었다. 이후 熙寧 4년(1071) 3월에 印經院은 폐지되었고 同年 8월에는 經板이 顯聖寺 聖壽禪院으로 이관되었다.¹⁾

개보장의 續刊은 일차적으로 咸平 元年(998) 雲勝의 요청으로 咸平(998-1003) 初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에는 1,000餘 卷의 佛典이 속간되었는데, 開元錄에 수록되지 않은 貞元錄藏의 經전 및 宋代 4명의 三藏의 漢譯한 宋新譯經 그리고 御製와 三藏의 集傳 등이었다. 이후 大中祥符(1008-1016), 天聖, 景祐, 元豐, 紹聖, 政和(1111 -1117) 年間에도 당시에 漢譯된 新譯經 및 불전들이 지속적으로 속간되어 大藏에 편입되었다.²⁾

그리고 開寶藏의 수정에 관해서 經錄에는 개보장이 天禧 2년(1018)에 王欽若에 의해 수정되었고,³⁾ 乾興 1년(1022)에 惟淨에 의해 다시 수정되다가 중단되었으며,⁴⁾ 景祐 3년(1036)에는 呂夷簡 등이 ‘貞元錄經’(續開元錄藏 經전인 이른바 ‘未入藏經 27帙’)을 수정했다⁵⁾는 기록이 보인다.

이와 같은 開寶藏에 대해서 일찍이 呂澄⁶⁾은 “宋藏蜀版異本考”⁷⁾에서 개보장이 인출되어 유통된 시기에 따라 板本을 ‘淳化本’, ‘咸平本’, ‘天禧本’, ‘熙寧本’, ‘崇寧本’ 등 5種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

1) 柳富鉉, “『開寶勅版大藏經』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25집(2003), 116.

2) 柳富鉉, “『高麗 再雕大藏經』과 大藏目錄의 構成,” 『書誌學研究』 33집(2006), 172.

3) “天禧二年(1018) 詔左僕射兼中書侍郎平章事王欽若 擇藏經之精妙者 讎校鏤板模印之” {景祐法寶總錄 권13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73책. p.559)}.

4) ① “乾興元年(1022) 詔惟淨等校大藏經” {『景祐法寶總錄』乾興元年條의 記事(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73책. p.596)}.

② “乾興元年(1022) 春正月 詔梵學筆受澄珠文一綴文簡長行肇 證義重杲善慈 就本寺普賢閣 同校大藏經 仍取 天壽皇建二院經本參對 三藏惟淨管勾 會眞宗升遐 罷其事” {景祐法寶總錄 권17(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73책. p.576)}.

5) “... 呂夷簡等請校正元錄經鏤板 詔從之” {景祐法寶總錄, 景祐 3年條의 記事(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73책. p.599)}.

6) 呂澄(1896-?)은 1914년 南京의 金陵刻經處 佛學研究部에서 歐陽竟無에게 佛學을 배웠다. 1918년 歐陽竟無를 도와 南京에서 支那內學院을 운영하였다.

7) 呂澄,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彙編』 (臺北: 大乘文化出版社, 1977), 195-205.

데 ‘咸平本’은 咸平(998-1003) 初年に 修訂되어 인출된 판본이고, ‘天禧本’은 天禧(1017-1021) 연간에 再修訂되어 인출된 판본인데, ‘咸平本’에서는 수많은 文句가 수정된 것 이외에 개보장본의 오류(誤題, 錯簡, 脫文, 衍文, 缺本) 10여 곳이 수정되었고, ‘天禧本’에서는 개보장본에 원래부터 있었던 오류 50여 곳이 대부분 교정된 것으로 기술하였다.

呂澄의 “宋藏蜀版異本考”는 개보장의 修訂에 대한 학계의 연구에 있어서 唯一無二한 것이다. 한편 필자의 생각에 呂澄의 주장은 그 논거가 매우 미흡하고 불분명하여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살펴본 經錄의 기록과 呂澄의 연구에 의하면, 개보장이 분명 한 두 차례 이상 수정된 것은 분명하다.

개보장의 수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개보장 板本の 正體性を 비롯해서 개보장을 底本으로 하였던 初雕藏・再雕藏・趙城藏의 底本과 板刻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대장경 판본의 대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개보장의 수정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진행되지 못하였다.

필자는 이미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모든 경전의 初雕藏本・再雕藏本・趙城藏本の 판본 대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필자가 진행한 판본 대조에서, 개보장의 수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경전으로 廣弘明集⁸⁾이 조사되었다. 廣弘明集의 初雕藏本・再雕藏本・趙城藏本の 판본 대조를 통해 발견된 文字異同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 저본인 개보장본에서 이루어졌던 수정된 내용과 상태가 그대로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광홍명집의 초조장본・재조장본・조성장본에서 조사된 文字異同 중에서 그 저본인 개보장본에서 이루어졌던 수정된 내용과 상태가 그대로 수용되어 있는 文字異同을 토대로 하여 이들 판본의 저본이 되었던 개보장본에서 수정된 내용과 그 원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이후 개보장을 저본으로 해서 간행된 初雕藏本・再雕藏本・趙城藏本の 저본과 판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2. 開寶藏 廣弘明集의 修訂된 내용 A

廣弘明集 30권 중에서 初雕藏本・再雕藏本・趙城藏本の 대조가 가능한 卷次는 제7, 14, 15, 16, 17, 18, 19, 21, 22, 24, 25, 26, 27권 등 총 13권이다. 이 13권의 경전을 대조해본 바, 初雕藏本・再雕藏本・趙城藏本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文字異同이 발견된다.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재조장본・조성장본에는 동일하게 修訂(補充, 削除, 增補)된 상태로 되어 있지만, 초조장본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 되어 있는 文字異同만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한 내용과 그 원인을 분석하

8) 廣弘明集 30권은 644년에 道宣(596-667)이 6세기초 僧祐(435-518)가 편찬한 弘明集 14권을 확대 개정하여 편찬한 것이다.

고자 한다.

먼저 발췌된 문자이동을 表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表 1>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A”와 같다.

<表 1>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A⁹⁾

	卷次	張次	行次	‘開寶藏 原本’의 狀態 (初雕藏本の 內容)	‘開寶藏 修訂本’의 補刻 狀態 (再雕藏本・趙城藏本の 內容)	寫眞
1	7	12	21	宋齊磨滅今宋齊磨滅寺像見在陞	宋齊磨滅今宋齊□□寺像見在陞	1
2	7	15	17 ~ 22	虞無佛圖而國安齊梁有寺舍而祚失者未合道也但利民益國則會佛心耳夫佛心者大慈爲本安樂含生終不苦役黎元虔恭泥木損傷有識蔭益無情今大周啓運遠慕唐虞請	虞之化無浮圖以治國而國得安齊梁之時有寺舍以化民而民不立者未合道也若言民壞不由寺舍國治豈在浮圖但教民心合道耳民合道則安道滋民則治立是以齊梁號像法而起九級連雲唐虞憂世人而累土階接地然齊梁非無功於寺舍而祚不延唐虞豈有業於浮圖而治得久但利民益國則會佛心耳夫佛心者以大慈爲本安樂含生終不苦役黎元虔恭泥木損傷有識蔭益無情而大周啓運繼歷齊圖總六合在一心齊日月之雙照養四生如厚地覆萬姓同玄天實三皇之中興堯堯民之始遇成五帝之新立德慶黎庶之逢時豈不慕唐虞之勝風遺齊梁之末法尚請	2
3	7	22	16	不惟疑目前快意莫慮於後我既破	不 之 惟疑目前快意莫慮於後我既破	3
4	7	22	22	佛法以從百姓之 意 歡心又顯勝相用	佛法以從百姓之□歡心又顯勝相用	3
5	7	30	4	命夢在一處多見是先亡命日皆定	命夢 在一 處多見是先亡命日皆定	4
6	17	6	6	亦躬念善舍利將入函大衆圍遶填	亦 躬 念善舍利將入函大衆圍遶填	5
7	17	10	15	流而過作役罷水便絕及將新塔水	流而過作役罷水便絕及 將 新塔水	6
8	18	22	1	三答耆者假也 眞常也 假如無常常	三答耆者假也 眞常也 假如無常常	7
9	18	25	14	必無未有先盡有先盡有累然後得	必無未有先盡□□□有累然後得	8
10	18	25	23	遺孔殆庶蒙竊惑焉云有漸故是自	遺孔殆庶蒙竊惑焉 云 有漸故是自	8
11	18	26	1	形者漸孔之無漸亦是自道者無漸	形者 漸 孔之無漸亦是自道者無漸	9
12	18	30	4	聞信聖人耶若聞信聖理不關心政	聞信聖人耶若聞信 聖 理不關心政	10
13	18	30	16	耳假者爲名非耆如何不恒其用豈	耳假者爲名非耆 如何 不恒其用豈	10
14	18	34	2	是故知必有過去無因之咎又云六	是故知必有過去 無 因之咎又云六	11
15	18	39	12	者必得無上道即經所言未聞有流	者必得無上道即經所言未聞 有 流	12
16	18	46	3	行以求郢路非所應也	行以求郢路非所應也 非所應也	13
17	22	5	16	至能兼又得謂不然也又昆蟲天促	至能兼 又 得謂不然也又昆蟲天促	14
18	22	5	22	可極形神之別斯既然矣形既可養	可極形神之別斯既然 矣 形既可養	14
19	22	40	8	之无求蠹其實拂二邊之相累遣未	之无求蠹其實拂二邊之 相累遣 未	15
20	25	21	5	王敬之若聖此則佛化之初及也朱	王敬之若 聖 此則佛化之初及也朱	16

- 9) ① 본고에서 假定된 開寶藏의 수정된 내용을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 첫째, 再雕藏本・趙城藏本에는 동일하게 修訂된 상태로 되어 있지만, 初雕藏本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 되어 있는 文字異同에 의거하여, 재조장본・조성장본에는 동일하게 수정된 상태로 되어 있는 내용을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A”로 命名하였다.
- 둘째, 재조장본・조성장본에는 동일하게 수정된 상태로 되어 있고, 초조장본에는 재조장본・조성장본과 다른 상태로 수정되어 있는 내용을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B”로 命名하였다.
- 셋째, 初雕藏本・再雕藏本에는 修訂되어 있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 되어 있지만, 조성장본에는 수정된 상태로 되어 있는 내용을 “開寶藏 再修訂本”의 修訂”으로 命名하였다.
- ② 表 안에서 ‘□’의 표시는 그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네모 안에 기재된 내용은 開寶藏

앞의 <表 1>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A”에 기재된 내용에서 ‘開寶藏 原本’의 상태는 初雕藏本의 내용에 의거한 것이고, ‘開寶藏 修訂本’의 補刻 상태는 再雕藏本・趙城藏本의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初雕藏本의 내용은 ‘개보장 원본’의 상태가 그대로 번각 수용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開寶藏 原本’은 개보장본의 經板이 판각되어 어떠한 수정도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된 판본으로 假定된 것이다. 그리고 再雕藏本・趙城藏本의 내용은 ‘개보장 수정본’의 상태가 그대로 번각 수용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開寶藏 修訂本’은 개보장본의 經板이 판각된 이후 그 경판에 일차적으로 修訂이 가해져 補刻된 다음 인출된 판본으로 假定된 것이다.

다음으로 <表 1>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A”에 기재된 개보장 수정본의 수정 내용(補充, 削除, 增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1항의 수정은 “磨滅寺”가운데 “磨滅”이 削除된 것이다.
- 2) 제2항의 수정은 원래 5행의 본문 내용으로 되어 있던 것이 10행의 내용으로 증보되어 이 내용 전체가 小字 雙行으로 補刻된 것이다.
- 3) 제3항의 수정은 “惟疑目” 앞에 “籌之”가 보충되어 “籌之惟疑目”으로 보각된 것이다.
- 4) 제4항의 수정은 “百姓之意歡心”가운데 “意”가 삭제된 것이다.
- 5) 제5항의 수정은 “在” 앞에 “又”가 보충되어 “又”로 보각되고, “亡命”과 “曰皆” 사이에 “問佛經罪福之事有實乎”가 보충되어 “亡命問佛經罪福之事有實乎曰皆”로 보각된 것이다.
- 6) 제6항의 수정은 “躬” 앞에 “責”이 보충되어 “責躬”으로 보각된 것이다.
- 7) 제7항의 수정은 “將” 뒤에 “起”가 보충되어 “將起”로 보각된 것이다.
- 8) 제8항의 수정은 “常也” 앞에 “者”가 보충되어 “者常也”로 보각된 것이다.
- 9) 제9항의 수정은 “有先盡有先盡”가운데 “有先盡”이 삭제된 것이다.
- 10) 제10항의 수정은 “云” 앞에 “釋”이 보충되어 “釋云”으로 보각된 것이다.
- 11) 제11항의 수정은 “漸” 앞에 “有”가 보충되어 “有漸”으로 보각된 것이다.
- 12) 제12항의 수정은 “聖” 뒤에 “人”이 보충되어 “聖人”으로 보각된 것이다.
- 13) 제13항의 수정은 “如” 앞에 “知”가 보충되어 “知如”로 보각된 것이다.
- 14) 제14항의 수정은 “無” 뒤에 “無”가 보충되어 “無無”로 보각된 것이다.
- 15) 제15항의 수정은 “有” 뒤에 “凡”이 보충되어 “有凡”으로 보각된 것이다.
- 16) 제16항의 수정은 “非所應也” 뒤에 “非所應也”가 보충 보각된 것이다.
- 17) 제17항의 수정은 “又”와 “得” 사이에 “不”이 보충되어 “又不得”으로 보각된 것이다.
- 18) 제18항의 수정은 “矣”와 “形” 사이에 “然”이 보충되어 “矣然形”으로 보각된 것이다.
- 19) 제19항의 수정은 “相累遣” 앞에 “迹忘中道之”가 보충되어 “迹忘中道之相累遣”으로 보각된 것이다.
- 20) 제20항의 수정은 “聖此” 앞에 “神重之若”이 보충되어 “神重之若聖此”로 보각된 것이다.

修訂本에서 補刻된 내용이 再雕藏本・趙城藏本에 그대로 번각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3. 開寶藏 廣弘明集의 修訂된 내용 B

여기에서는 재조장본·조성장본에는 동일하게 修訂(補充, 削除, 增補)된 상태로 되어 있고, 초조장본에는 재조장본·조성장본과 다른 상태로 수정되어 있는 文字異同만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한 내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발췌된 문자이동을 表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表 2>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B”와 같다.

<表 2> 廣弘明集 初雕藏本과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卷次	張次	行次	初雕藏本の 修訂・補刻 狀態 (初雕藏本の 內容)	開寶藏 修訂本の 補刻 狀態 (趙城藏本・再雕藏本の 內容)	寫眞
1	7	6 7 ~ 10	加誣之太甚也又云大覺無慈又云於生無益斯竝以愚量智以聖齊凡抗大覺之成化失淳人之弘善可謂螻蟻有拒輪之勇井蛙滯坎窞之心哉	加誣之太甚也又云大覺於生無益斯竝以愚量智以聖齊凡抗大覺之成化失淳人之弘善可謂螻蟻有拒輪之勇井蛙滯坎窞之心哉	20
2	7	25 11 12	胤散列諸州祖宗遺緒如何輒異若異其先斯爲絕嗣三千之罪莫有高之況	胤散列諸州祖宗遺緒如何輒異若異其先斯爲絕嗣三千之罪莫有高之況	21
3	18	33 8	無不泮情每慨之是以忽疏野懷聊試	無不泮情每慨之是以忽疏野懷聊試	22
4	22	5 12 ~ 14	端互起互起衆端復同前矣不相兼之由由於淺惑淺爲病病於滯有不淺不惑出於兼忘以此兼得此兼忘照	端互起互起衆端復同前不相兼之由由於淺惑淺爲病病於滯有不淺不惑出於兼忘以此兼得此兼照	23
5	24	37 7 ~ 16	轉充虛四扉排疾然後尋八正以味一眞解十纏而遭三患斯之德也寧不至哉貧道識鏡難清心塵易墜定慚花水戒非草繫才倖撤燭學謝傳燈內有愧於德充外無狎於人世是以淹滯一丘寓形蓬柳端居千仞託志筠松測四序於風霜候三旬於眺魄至酒夜聞山鳥仍代九成書視遊魚聊追二子華戶弊衿既在原非病朱門結駟亦於我如雲所歎藤鼠易侵樹援難靜勞想驚頭倦思鷄足至於林	轉充虛四扉排疾然後尋八正以味一眞解十纏而遭三患斯之德也寧不至哉貧道識鏡難清心塵易墜定慚花水戒非草繫才倖撤燭學謝傳燈內有愧於德充外無狎於人世是以淹滯一丘寓形蓬柳端居千仞託志筠松測四序於風霜候三旬於眺魄至酒夜聞山鳥仍代九成書視遊魚聊追二子華戶弊衿既在原非病朱門結駟亦於我如雲所歎藤鼠易侵樹援難靜勞想驚頭倦思鷄足至於林	24
6	25	19 1 ~ 5	令拜君親垂惻隱之懷顯疏朝議僧等荷斯明命感悼涕零良由行缺光時遂令上霑憂被且自法教東漸亟涉窳隆三被屏除五遭拜伏俱非休明之代並是暴虐之君故使布令非經國之謨乖常致良史之諛事理難返還襲舊	令拜君親垂惻隱之懷顯疏朝議僧等荷斯明命感悼涕零良由行缺光時遂令上霑憂被且自法教東漸亟涉窳隆三被屏除五遭拜伏俱非休明之代並是暴虐之君故使布令非經國之謨乖常致良史之諛事理難返還襲舊	25
7	25	28 21 ~ 23	就養之方懷生之倫共紀凡在君父理絕名言而老釋二門出塵遺俗虛无一旨離有會空瑞見毘耶闍慈悲之偈氣	就養之方懷生之倫共紀凡在君父理絕名言而老釋二門出塵遺俗虛无一旨離有會空瑞見毘耶闍慈悲之偈氣	26

	卷次	張次	行次	初雕藏本の 修訂・補刻 狀態 (初雕藏本の 內容)	開寶藏 修訂本の 補刻 狀態 (趙城藏本・再雕藏本の 內容)	寫眞
8	25	40	6	其身詳稽理要恐有未愜又道之爲範 雖全髮膚出家超俗其歸一揆加以遠標	其身詳稽理要恐有未愜又道之爲範雖全髮膚出家超俗其歸一揆加以遠標	27
9	26	16	9 10	涅槃經爲當曾聞此說爲當不聞若 已曾聞不應違背若未曾聞今宜憶 持佛經中究竟說斷一切肉迺至自死	涅槃經爲當曾聞此說爲當不聞若已曾聞 違背若未曾聞今宜憶持佛經中究竟說斷一切肉迺至自死	28
10	26	16	15 ~ 22	樂若食肉者一切衆生皆爲怨對同 不安樂若食肉者是遠離聲聞法若食肉 者是遠離辟支佛法若食肉者是遠離 菩薩法若食肉者是遠離菩薩道若食 肉者是遠離佛果若食肉者是遠離大 涅槃若食肉者是障六欲天何況涅槃 果若食肉者是障四禪法若食肉者是 障四空法若食肉者是障戒法若食肉 者是障定法若食肉者是障慧法若	樂若食肉者一切衆生皆爲怨對同 不安樂若食肉者是遠離聲聞法若食肉 者是遠離辟支佛法若食肉者是遠離 菩薩法若食肉者是遠離菩薩道若食 肉者是遠離佛果若食肉者是遠離大 涅槃若食肉者是障六欲天何況涅槃 果若食肉者是障四禪法若食肉者是 障四空法若食肉者是障戒法若食肉 者是障定法若食肉者是障慧法若	28
11	26	17	1 ~ 10	食肉者是障信根若食肉者是障進根 若食肉者是障念根若食肉者是障定 根若食肉者是障慧根舉要爲言障三 十七道品若食肉者是障四眞諦若食 肉者是障十二因緣若食肉者是障六 波羅蜜若食肉者是障四弘誓願若食 肉者是障四攝法若食肉者是障四無 量心若食肉者是障四無礙智若食肉 者是障三昧若食肉者是障八解脫若 食肉者是障九次第定若食肉者是	食肉者是障信根若食肉者是障進根 若食肉者是障念根若食肉者是障定 根若食肉者是障慧根舉要爲言障三 十七道品若食肉者是障四眞諦若食 肉者是障十二因緣若食肉者是障六 波羅蜜若食肉者是障四弘誓願若食 肉者是障四攝法若食肉者是障四無 量心若食肉者是障四無礙智若食肉 者是障三昧若食肉者是障八解脫若 食肉者是障九次第定若食肉者是	29
12	26	19	1 ~ 7	因噉食衆生是破背因噉食衆生是剝 腹因噉食衆生是碎髓因噉食衆生是 抉目因噉食衆生是割鼻因噉食衆生 是截耳因噉食衆生是貧窮因噉食衆 生是下賤因噉食衆生是凍餓因噉食 衆生是醜陋因噉食衆生是瞋因噉食 衆生是盲因噉食衆生是瘡因噉食衆	因噉食衆生是破背因噉食衆生是剝 腹因噉食衆生是碎髓因噉食衆生是 抉目因噉食衆生是割鼻因噉食衆生 是截耳因噉食衆生是貧窮因噉食衆 生是下賤因噉食衆生是凍餓因噉食 衆生是醜陋因噉食衆生是瞋因噉食 衆生是盲因噉食衆生是瘡因噉食衆	30
13	26	19	17 ~ 23	衆生是致蟲因噉食衆生是致蚊因噉食 衆生是致蠱因噉食衆生是遭毒蟲因 噉食衆生是遭惡獸因噉食衆生是病 瘦因噉食衆生是寒熱因噉食衆生是 頭痛因噉食衆生是心痛因噉食衆生 是腹痛因噉食衆生是胸痛因噉食衆 生是背痛因噉食衆生是手痛因噉食	衆生是致蟲因噉食衆生是致蚊因噉食 衆生是致蠱因噉食衆生是遭毒蟲因 噉食衆生是遭惡獸因噉食衆生是病 瘦因噉食衆生是寒熱因噉食衆生是 頭痛因噉食衆生是心痛因噉食衆生 是腹痛因噉食衆生是胸痛因噉食衆 生是背痛因噉食衆生是手痛因噉食	30

앞의 <表 2>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B”에 기재된 내용에서 初雕藏本の 修訂・補刻의 상태는 初雕藏本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修訂(補寫板刻, 補刻)된 상태이고, ‘開寶藏 修訂本’의 補刻 상태는 再雕藏本・趙城藏本의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初雕藏本의 내용은 ‘개보장 원본’을 저본으로 해서 飜刻되면서 補寫板刻의 형식으로 수정된 것과 초조장본의 판각이 완료된 이후 補刻의 형식으로 수정된 것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再雕藏本・趙城藏本의 내용은 ‘개보장

수정본'의 상태가 그대로 번각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開寶藏 修訂本'은 개보장본의 經板이 판각된 이후 그 경판에 일차적으로 修訂이 가해져 補刻된 다음 인출된 판본으로 假定된 것이다.

다음으로 <表 2>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B”에 의거하여 개보장 수정본에서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表 2>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B”에서 ‘개보장 수정본’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분석해 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초조장본·재조장본·조성장본 세 본이 모두 ‘개보장 원본’의 내용이 아닌 수정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表 2>에 소개된 재조장본·조성장본의 文字異同 상태는 修訂 補刻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수정 상태는 재조장본·조성장본 두 본이 완전히 동일하다. 이로 볼 때 두 본의 修訂 補刻은 재조장본과 조성장본 자체에서 이루어진 수정 보각이 아니고, 그 저본인 ‘개보장 수정본’의 수정 보각된 내용과 상태가 그대로 재조장본·조성장본 두 본에 번각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초조장본은 그 수정된 내용이 재조장본·조성장본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로 볼 때, 초조장본은 ‘개보장 원본’을 저본으로 해서 번각되었지만, 그 수정은 ‘개보장 수정본’의 수정 내용이 수용된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교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개보장 수정본’에서 이루어진 수정 보각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내용은 대부분 小字 雙行으로 補刻된 것으로서 <表 2> “廣弘明集 ‘開寶藏 修訂本’의 修訂 B”의 開寶藏 修訂本の 補刻 狀態(趙城藏本·再雕藏本의 內容)에서 네모 안에 들어 있는 내용과 같다.

4. 開寶藏 廣弘明集의 再修訂된 내용

이제부터는 초조장본·재조장본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래의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조성장본에는 修訂(補充, 削除, 增補)된 상태로 되어 있는 文字異同만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한 내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발췌된 문자이동을 表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表 3> “廣弘明集 ‘開寶藏 再修訂本’의 修訂”과 같다.

<표 3> 廣弘明集 ‘開寶藏 再修訂本’의 修訂

	卷次	張次	行次	開寶藏 原本의 狀態 (初雕藏本·再雕藏本의 內容)	開寶藏 再修訂本の 補刻 狀態 (趙城藏本의 內容)	寫眞
1	18	22	3	知之眞哉今覺合賢於不合誠如來	知之眞哉今覺合賢於不合賢於不合誠如來	7
2	18	32	15	知不自中未爲能照耶	知不自中未爲能照耶隨佛法諸深義九	17
3	18	34	4	識又正見名過去業未來中果法也	識又正名過去業未來中果法也	11
4	18	45	3	性寂於是假謂佛陀分別影於外	性寂於是假謂佛陀分別既於外	18
5	26	47	4	涅槃斷肉事于時僧正慧超法寵法	涅槃斷肉事于時僧正慧超法寵法	19

앞의 <表 3> “廣弘明集 ‘開寶藏 再修訂本’의 修訂”에 기재된 내용에서 ‘開寶藏 原本’의 상태는 初雕藏本・再雕藏本の 내용에 의거한 것이고, ‘開寶藏 再修訂本’의 補刻 상태는 趙城藏本の 내용에 의거한 것이다.

筆者는 앞 章에서 廣弘明集 제7, 14, 15, 16, 17, 18, 19, 21, 22, 24, 25, 26, 27권 등의 초조장본은 ‘개보장 원본’의 상태가 그대로 번각 수용된 것이고, 재조장본・조성장본의 내용은 ‘개보장 수정본’의 상태가 그대로 번각 수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開寶藏 修訂本’은 개보장본의 經板이 판각된 이후 그 경판에 일차적으로 修訂이 가해져 補刻된 다음 인출된 판본으로 假定하였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廣弘明集 제18권, 제26권에서 조사된 문자이동은 앞 章에서 분석한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인데, 초조장본・재조장본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래의 내용대로 되어 있지만, 조성장본에는 修訂된 상태로 되어 있는 文字異同인 것이다. 이러한 문자이동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마도 廣弘明集 제18권, 제26권의 조성장본에는 ‘開寶藏 再修訂本’의 상태가 번각 수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개보장 재수정본’은 개보장본의 經板이 판각된 이후 그 경판에 일차적으로 修訂이 가해져 補刻된 이후 다시 이차적으로 다른 내용에 수정이 가해져 또 다시 補刻된 다음 인출된 판본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表 3> “廣弘明集 ‘開寶藏 再修訂本’의 修訂”에 기재된 개보장 재수정본의 수정 내용(補充, 削除, 增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1항의 수정은 “知之眞哉今躋合賢於不合” 뒤에 “賢於不合”이 보충되어 “知之眞哉今躋合賢於不合”로 보각된 것이다.
- 2) 제2항의 수정은 “耶” 뒤에 “述佛法諸深義九”가 증보되어 “述佛法諸深義九”로 보각된 것이다.
- 3) 제3항의 수정은 “正見名” 가운데 “見”이 삭제된 것이다.
- 4) 제4항의 수정은 “既影於” 가운데 “影”이 삭제된 것이다.
- 5) 제2항의 수정은 “法” 뒤에 “師”가 보충되어 “法師”로 보각된 것이다.

5. 결 언

본고는 廣弘明集 제7, 14, 15, 16, 17, 18, 19, 21, 22, 24, 25, 26, 27권의 초조장본・재조장본・조성장본을 대조하여 조사된 文字異同 중에서 그 저본인 開寶藏本에서 이루어졌던 수정된 내용과 상태가 그대로 수용되어 있는 文字異同을 토대로 하여 이들 판본의 저본이 되었던 개보장본의 수정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廣弘明集의 초조장본・재조장본・조성장본 세 본의 판본 대조에서 조사된 문자이동의 내용과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분석되었다.

첫째, 再雕藏本・趙城藏本에는 동일하게 修訂(補充, 削除, 增補)된 상태로 되어 있지만, 初雕藏

本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은 원래의 상태로 되어 있는 文字異同이 조사되었다. 이 문자이동에서 初雕藏本의 내용은 ‘開寶藏 原本’의 상태가 그대로 飜刻 수용된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개보장 원본’은 개보장본의 經板이 판각되어 어떠한 수정도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출된 판본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再雕藏本・趙城藏本의 내용은 ‘開寶藏 修訂本’의 상태가 그대로 번각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개보장 수정본’은 개보장본의 經板이 판각된 이후 그 경판에 일차적으로 修訂이 가해져 補刻된 다음 인출된 판본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재조장본・조성장본에는 동일하게 수정된 상태로 되어 있고, 초조장본에는 재조장본・조성장본과 다른 상태로 수정되어 있는 文字異同이 조사되었다. 이 문자이동에서 初雕藏本의 내용은 ‘開寶藏 原本’을 저본으로 해서 번각되면서 補寫板刻의 형식으로 수정되거나 초조장본의 판각이 완료된 이후 補刻의 형식으로 수정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再雕藏本・趙城藏本의 내용은 ‘開寶藏 修訂本’의 상태가 그대로 번각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初雕藏本・再雕藏本에는 수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래의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趙城藏本에는 修訂된 상태로 되어 있는 文字異同이 조사되었다. 이 문자이동에서 조성장본에는 ‘開寶藏 再修訂本’의 상태가 번각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개보장 재수정본’은 개보장본의 經板이 판각된 다음 그 경판에 일차적으로 修訂이 가해져 補刻된 이후 다시 이차적으로 다른 내용에 수정이 가해져 한 번 더 補刻된 다음 인출된 판본으로 추정되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廣弘明集의 開寶藏本에는 3종류의 판본 즉 ‘개보장 원본’, ‘개보장 수정본’, ‘개보장 재수정본’이 있었고, 廣弘明集 제7, 14, 15, 16, 17, 18, 19, 21, 22, 24, 25, 26, 27권 등에 있어서 초조장본의 저본은 ‘開寶藏 原本’이고, 재조장본의 저본은 ‘開寶藏 修訂本’이며, 조성장본의 저본은 ‘開寶藏 再修訂本’이었다는 사실이 도출되었다.

<참고문헌>

柳富鉉. “『開寶勅版大藏經』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25집(2003).

柳富鉉. “『高麗 再雕大藏經』과 大藏目錄의 構成.” 『書誌學研究』 33집(2006).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呂澄.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彙編』. 臺北: 大乘文化出版社, 1977.

初雕藏	祭又虧名教五尺牧豎猶知不疑四海之尊義無二三其德臣為陛下不取五也詳濟以事微理今則以理通事夫因果報應事同影響若不信因前果後則不謂形動影隨物理顯然如何致惑伐木掘地天常之舊規造寺興供人倫之厚教勞民損轍何帝无之是以福不自資四俗不辭勞役罪不及他百蟲死而非罪謂正法為歟書以索齋為誦祭斯並幽明之所切齒賢聖之所哀矜然濟不知岳瀆大神奉佛而祈福賜天地靈聖拜首而請玄章故能峙立宇宙之中獲四无畏獨居空有之界具四辯才非濟所知或知而故謗以動帝情也 濟曰秦正受誑於三山漢徹見欺於五利信順狀訛一至於此不察情為豈懲前失又引五事明宋齊兩代重佛敬僧國移唐政者但是佛妖僧為奸詐為心墮胎煞子昏媾亂道故使宋齊唐滅今宋齊唐滅寺像見在陛下承事則宋齊之變不言而顯矣今僧居坐夏不煞踴蟻者愛含生之命
再雕藏	祭又虧名教五尺牧豎猶知不疑四海之尊義無二三其德臣為陛下不取五也詳濟以事微理今則以理通事夫因果報應事同影響若不信因前果後則不謂形動影隨物理顯然如何致惑伐木掘地天常之舊規造寺興供人倫之厚教勞民損轍何帝无之是以福不自資四俗不辭勞役罪不及他百蟲死而非罪謂正法為歟書以索齋為誦祭斯並幽明之所切齒賢聖之所哀矜然濟不知岳瀆大神奉佛而祈福賜天地靈聖拜首而請玄章故能峙立宇宙之中獲四无畏獨居空有之界具四辯才非濟所知或知而故謗以動帝情也 濟曰秦正受誑於三山漢徹見欺於五利信順狀訛一至於此不察情為豈懲前失又引五事明宋齊兩代重佛敬僧國移唐政者但是佛妖僧為奸詐為心墮胎煞子昏媾亂道故使宋齊唐滅今宋齊唐滅寺像見在陛下承事則宋齊之變不言而顯矣今僧居坐夏不煞踴蟻者愛含生之命
趙城藏	祭又虧名教五尺牧豎猶知不疑四海之尊義無二三其德臣為陛下不取五也詳濟以事微理今則以理通事夫因果報應事同影響若不信因前果後則不謂形動影隨物理顯然如何致惑伐木掘地天常之舊規造寺興供人倫之厚教勞民損轍何帝无之是以福不自資四俗不辭勞役罪不及他百蟲死而非罪謂正法為歟書以索齋為誦祭斯並幽明之所切齒賢聖之所哀矜然濟不知岳瀆大神奉佛而祈福賜天地靈聖拜首而請玄章故能峙立宇宙之中獲四无畏獨居空有之界具四辯才非濟所知或知而故謗以動帝情也 濟曰秦正受誑於三山漢徹見欺於五利信順狀訛一至於此不察情為豈懲前失又引五事明宋齊兩代重佛敬僧國移唐政者但是佛妖僧為奸詐為心墮胎煞子昏媾亂道故使宋齊唐滅今宋齊唐滅寺像見在陛下承事則宋齊之變不言而顯矣今僧居坐夏不煞踴蟻者愛含生之命

初雕藏	禁令自死從之經二年周武平齊出之隋初猶存不測其終今讀子施表奏惟述僧之煖煖蓄積財事更無別致吐言繁重隨事廣張無識者謂上事極多通賄者止惟二轍謂財色也大同荀濟之言才理雲泥不及于時魏齊兩代名僧若林舉十統以綰之立昭玄以司之清衆睥如不可陷溺子施家素貧前投底莫從形骸所資惟衣與食困此終宴長弊飢寒嫌僧厚施致陳抗表終被抑退不遂其心可謂澹澹漢博士詞費而無鎔檢傳弄又加粉墨言轉浮碎為下愚者所笑何況上達者哉 十七衛元嵩本河東人遠祖從官遂家于蜀梁末為僧陽狂浪宕周氏平蜀因介入關天和二年上書略云唐虞無佛圖而國安齊梁有寺舍而祚失者未合道也但利民益國則會佛心耳夫佛心者大慈為本安樂含生終不苦役黎民皮茶泥木損傷有識蔭益无情令大周啓運遠慕唐虞請造平延大寺容貯四海万姓不勒立
再雕藏	禁令自死從之經二年周武平齊出之隋初猶存不測其終今讀子施表奏惟述僧之煖煖蓄積財事更無別致吐言繁重隨事廣張無識者謂上事極多通賄者止惟二轍謂財色也大同荀濟之言才理雲泥不及于時魏齊兩代名僧若林舉十統以綰之立昭玄以司之清衆睥如不可陷溺子施家素貧前投底莫從形骸所資惟衣與食困此終宴長弊飢寒嫌僧厚施致陳抗表終被抑退不遂其心可謂澹澹漢博士詞費而無鎔檢傳弄又加粉墨言轉浮碎為下愚者所笑何況上達者哉 十七衛元嵩本河東人遠祖從官遂家于蜀梁末為僧陽狂浪宕周氏平蜀因介入關天和二年上書略云唐虞之化無浮圖以治國而國得安齊梁之時有寺舍以化民而民不立者未合道也若言民壞不由寺舍國治豈在浮圖但教民心合道耳民舍道則安道滋民則治立是以齊梁之際法而起九級連雲廣受病人而累土增地地然齊梁非無功於寺舍而作不延唐虞原有禁於浮圖而治得久但利民益國則會佛心耳夫佛心者以大慈為本安樂含生終不苦役黎民皮茶泥木損傷有識蔭益无情令大周啓運遠慕唐虞請造平延大寺容貯四海万姓不勒立
趙城藏	禁令自死從之經二年周武平齊出之隋初猶存不測其終今讀子施表奏惟述僧之煖煖蓄積財事更無別致吐言繁重隨事廣張無識者謂上事極多通賄者止惟二轍謂財色也大同荀濟之言才理雲泥不及于時魏齊兩代名僧若林舉十統以綰之立昭玄以司之清衆睥如不可陷溺子施家素貧前投底莫從形骸所資惟衣與食困此終宴長弊飢寒嫌僧厚施致陳抗表終被抑退不遂其心可謂澹澹漢博士詞費而無鎔檢傳弄又加粉墨言轉浮碎為下愚者所笑何況上達者哉 十七衛元嵩本河東人遠祖從官遂家于蜀梁末為僧陽狂浪宕周氏平蜀因介入關天和二年上書略云唐虞之化無浮圖以治國而國得安齊梁之時有寺舍以化民而民不立者未合道也若言民壞不由寺舍國治豈在浮圖但教民心合道耳民舍道則安道滋民則治立是以齊梁之際法而起九級連雲廣受病人而累土增地地然齊梁非無功於寺舍而作不延唐虞原有禁於浮圖而治得久但利民益國則會佛心耳夫佛心者以大慈為本安樂含生終不苦役黎民皮茶泥木損傷有識蔭益无情令大周啓運遠慕唐虞請造平延大寺容貯四海万姓不勒立

初雕藏	代齊代之行福也寺塔崇盛僧衆雜聚不能節之以道繼其清亂斬斛律明月虛聽識詞周軍聞便解甲齊后斯閭主也權守國資不能周給宇文既破帑藏充盈不解身用銜絀而諂軍門財實並為周有祖周既廢二教自以為萬代之上榮也西平東討無往不尅以為滅法之廣略也固天宥之統叔齊餘泉貨鳩拾素是貧國繼續全希一旦獲之填膺滿目連手運帛接軫長途斯為大盜之滅國乃以為興師之盛業也生滅得失曾不權權督前快意莫慮於後我既破他他亦破我自古恒念無得不思周祖謂以萬代常存向天地而齊壽也窮討巖穴務存藏積守儉保素尅已勵俗亦萬代之一人也當年崩背而其子用之大張文物高陳聲勢即開佛法以從百姓之意歡心又顯勝相用呈大國之威雄也立四皇后表八柱國前後齒薄隊仗倍常各二十四自古皇王莫之比擬立充宣政禪位小兒時在經綽正位斯及自号天元皇
再雕藏	代齊代之行福也寺塔崇盛僧衆雜聚不能節之以道繼其清亂斬斛律明月虛聽識詞周軍聞便解甲齊后斯閭主也權守國資不能周給宇文既破帑藏充盈不解身用銜絀而諂軍門財實並為周有祖周既廢二教自以為萬代之上榮也西平東討無往不尅以為滅法之廟略也固天宥之統叔齊餘泉貨鳩拾素是貧國繼續全希一旦獲之填膺滿目連手運帛接軫長途斯為大盜之滅國乃以為興師之盛業也生滅得失曾不權權督前快意莫慮於後我既破他他亦破我自古恒念無得不思周祖謂以萬代常存向天地而齊壽也窮討巖穴務存藏積守儉保素尅已勵俗亦萬代之一人也當年崩背而其子用之大張文物高陳聲勢即開佛法以從百姓之歡心又顯勝相用呈大國之威雄也立四皇后表八柱
趙城藏	代齊代之行福也寺塔崇盛僧衆雜聚不能節之以道繼其清亂斬斛律明月虛聽識詞周軍聞便解甲齊后斯閭主也權守國資不能周給宇文既破帑藏充盈不解身用銜絀而諂軍門財實並為周有祖周既廢二教自以為萬代之上榮也西平東討無往不尅以為滅法之廟略也固天宥之統叔齊餘泉貨鳩拾素是貧國繼續全希一旦獲之填膺滿目連手運帛接軫長途斯為大盜之滅國乃以為興師之盛業也生滅得失曾不權權督前快意莫慮於後我既破他他亦破我自古恒念無得不思周祖謂以萬代常存向天地而齊壽也窮討巖穴務存藏積守儉保素尅已勵俗亦萬代之一人也當年崩背而其子用之大張文物高陳聲勢即開佛法以從百姓之歡心又顯勝相用呈大國之威雄也立四皇后表八柱國前後齒薄隊仗倍常各二十四自古皇王莫之比擬立充宣政禪位小兒時在經綽正位斯及自号天元皇

<寫眞 4> 廣弘明集 第7卷 第30張

初雕藏	命夢在一處多見是先亡命曰皆定 實也又問如傳奔生乎不信佛死受 何報答曰傳奔已配越州作泥人矣 長命旦入殿庭見薛績說所夢績又 說之二夢符合臨在其側同嗟嘆之 績即送錢付奔并說所夢後數日而 奔平案泥人者謂泥犁中人也泥犁 即地獄之別名矣八大地獄在於地 下餘諸雜獄散在山中海內而受苦 也深可痛哉 廣弘明集卷第七
再雕藏	廣弘明集卷第七 第三十張 鈞薛績善後傳薛俱受官仁鈞先亡 績夢見鈞曰先所負錢可付泥人績 問誰耶曰即傳奔也是夜少府馮長 命夢又在處多見是先亡命曰皆定 實也又問如傳奔生乎不信佛死受 何報答曰傳奔已配越州作泥人矣 長命旦入殿庭見薛績說所夢績又 說之二夢符合臨在其側同嗟嘆之 績即送錢付奔并說所夢後數日而 奔平案泥人者謂泥犁中人也泥犁 即地獄之別名矣八大地獄在於地 下餘諸雜獄散在山中海內而受苦 也深可痛哉 廣弘明集卷第七 癸卯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 勅彫造
趙城藏	命夢在一處多見是先亡命曰皆定 實也又問如傳奔生乎不信佛死受 何報答曰傳奔已配越州作泥人矣 長命旦入殿庭見薛績說所夢績又 說之二夢符合臨在其側同嗟嘆之 績即送錢付奔并說所夢後數日而 奔平案泥人者謂泥犁中人也泥犁 即地獄之別名矣八大地獄在於地 下餘諸雜獄散在山中海內而受苦 也深可痛哉 廣弘明集卷第七

初雕藏	愧甚懼銘其心刻其骨投財賄衣物及截髮以施者不可勝計日日共設大齋札懺受戒請從今以往脩善斷惡生生世世常得作大隋臣子元長幼華夷咸發此誓雖屠獵殘賊之人亦躬念善舍利將入函大衆圍遶填噓沙門高奉寶瓶巡示四部人人拭目諦視共睹光明哀戀涕泣聲響如雷天地為之變動凡是安置處悉如之真身已應靈塔常存天下瞻仰歸依福日益而无穷矣 皇帝以起塔之旦在大興宮之大興殿庭西面執珽而立延請佛像及沙門三百六十七人檐蓋香花讚唄音樂自大興善寺來居殿堂皇帝燒香禮拜降御東廊親率文武百寮素食齋戒是時內宮建於京邑茫茫萬寓舟車所通一切眷屬人民莫不奉行聖法衆僧初入勅使左右密夾數之自顯陽門及昇階凡數三遍常賸一人皇帝見一異僧曷槃覆膊以語左右曰驚動他置尔去已重數之曷槃覆膊者果不復現舍利之將行也皇
再雕藏	愧甚懼銘其心刻其骨投財賄衣物及截髮以施者不可勝計日日共設大齋札懺受戒請從今以往脩善斷惡生生世世常得作大隋臣子元長幼華夷咸發此誓雖屠獵殘賊之人亦躬念善舍利將入函大衆圍遶填噓沙門高奉寶瓶巡示四部人人拭目諦視共睹光明哀戀涕泣聲響如雷天地為之變動凡是安置處悉如之真身已應靈塔常存天下瞻仰歸依福日益而无穷矣 皇帝以起塔之旦在大興宮之大興殿庭西面執珽而立延請佛像及沙門三百六十七人檐蓋香花讚唄音樂自大興善寺來居殿堂皇帝燒香禮拜降御東廊親率文武百寮素食齋戒是時內宮建於京邑茫茫萬寓舟車所通一切眷屬人民莫不奉行聖法衆僧初入勅使左右密夾數之自顯陽門及昇階凡數三遍常賸一人皇帝見一異僧曷槃覆膊以語左右曰驚動他置尔去已重數之曷槃覆膊者果不復現舍利之將行也皇
趙城藏	愧甚懼銘其心刻其骨投財賄衣物及截髮以施者不可勝計日日共設大齋札懺受戒請從今以往脩善斷惡生生世世常得作大隋臣子元長幼華夷咸發此誓雖屠獵殘賊之人亦躬念善舍利將入函大衆圍遶填噓沙門高奉寶瓶巡示四部人人拭目諦視共睹光明哀戀涕泣聲響如雷天地為之變動凡是安置處悉如之真身已應靈塔常存天下瞻仰歸依福日益而无穷矣 皇帝以起塔之旦在大興宮之大興殿庭西面執珽而立延請佛像及沙門三百六十七人檐蓋香花讚唄音樂自大興善寺來居殿堂皇帝燒香禮拜降御東廊親率文武百寮素食齋戒是時內宮建於京邑茫茫萬寓舟車所通一切眷屬人民莫不奉行聖法衆僧初入勅使左右密夾數之自顯陽門及昇階凡數三遍常賸一人皇帝見一異僧曷槃覆膊以語左右曰驚動他置尔去已重數之曷槃覆膊者果不復現舍利之將行也皇

初雕藏	新死小兒來乞救護至夜便蘇過光照以愈疾者非一諸州皆有感應而柘巖寺窠多蓋由太祖武元皇帝之所建也 并州於舊无量壽寺起塔舍利初在道場大眾禮拜重惠者便得除起塔之旦雲霧晝昏至於已後日乃朗照五色雲夾之舍利將入函放光或一尺或五寸有無量天神各持香花幢幡寶蓋遍覆州城 定州於恒岳寺起塔有一異翁來禮拜施布一疋負土數籠入問其姓字而不荅忽然失之此地舊无水開皇三年初營寺其西八里白龍淵忽東流而過作役罷水便絕及將起新塔水復大流 相州於大慈寺起塔天時陰雪舍利下日便朗照始入函雲復合建塔之明年八月光天丘寺寫得陝州瑞相圖置於佛堂神光屢發如電又有五色雲蓋正臨堂上一日四見焉又有白雲狀如林木秀雨金花其二花形如大蟒色似青瑠璃翱翔八下乃騰
再雕藏	新死小兒來乞救護至夜便蘇過光照以愈疾者非一諸州皆有感應而柘巖寺窠多蓋由太祖武元皇帝之所建也 并州於舊无量壽寺起塔舍利初在道場大眾禮拜重惠者便得除起塔之旦雲霧晝昏至於已後日乃朗照五色雲夾之舍利將入函放光或一尺或五寸有無量天神各持香花幢幡寶蓋遍覆州城 定州於恒岳寺起塔有一異翁來禮拜施布一疋負土數籠入問其姓字而不荅忽然失之此地舊无水開皇三年初營寺其西八里白龍淵忽東流而過作役罷水便絕及將起新塔水復大流 相州於大慈寺起塔天時陰雪舍利將下便朗照始入函雲復合建塔之明年八月光天丘寺寫得陝州瑞相圖置於佛堂神光屢發如電又有五色雲蓋正臨堂上一日四見焉又有白雲狀如林木秀雨金花其二花形如大蟒色似青瑠璃翱翔不下乃騰
趙城藏	新死小兒來乞救護至夜便蘇過光照以愈疾者非一諸州皆有感應而柘巖寺窠多蓋由太祖武元皇帝之所建也 并州於舊无量壽寺起塔舍利初在道場大眾禮拜重惠者便得除起塔之旦雲霧晝昏至於已後日乃朗照五色雲夾之舍利將入函放光或一尺或五寸有無量天神各持香花幢幡寶蓋遍覆州城 定州於恒岳寺起塔有一異翁來禮拜施布一疋負土數籠入問其姓字而不荅忽然失之此地舊无水開皇三年初營寺其西八里白龍淵忽東流而過作役罷水便絕及將起新塔水復大流 相州於大慈寺起塔天時陰雪舍利將下便朗照始入函雲復合建塔之明年八月光天丘寺寫得陝州瑞相圖置於佛堂神光屢發如電又有五色雲蓋正臨堂上一日四見焉又有白雲狀如林木秀雨金花其二花形如大蟒色似青瑠璃翱翔而下乃騰

初雕藏	三答覆者假也真常也假知無常常知無假今豈可以假知之變而侵常知之真哉今整合賢於不合誠如來言竊有微證巫臣諫莊王之日物賒於已故理為情先及納夏姬之時已交於物故情居理上情理雲互物已相傾亦中知之率任也若以諫自為悟豈容納時之惑耶且南為聖也北為愚也背北向南非停北之謂向南背北非至南之稱然向南可以向南背北非是停北非是停北故愚可去矣可以至南故悟可得矣 慧麟演僧維問 當假知之合與真知同異 初答 與真知異 麟再問 以何為異 再答假知者累伏故理變為用用變在理不恆其知真知者照寂故理常為用用常在理故永為真知 麟三問累不自除故求理以除累今假知之一合理實在心在心而累不去將何以去之乎 三答累起因心心觸成累累恒觸者心
再雕藏	三答覆者假也真者常也假知無常常知無假今豈可以假知之變而侵常知之真哉今整合賢於不合誠如來言竊有微證巫臣諫莊王之日物賒於已故理為情先及納夏姬之時已交於物故情居理上情理雲互物已相傾亦中知之率任也若以諫自為悟豈容納時之惑耶且南為聖也北為愚也背北向南非停北之謂向南背北非至南之稱然向南可以向南背北非是停北非是停北故愚可去矣可以至南故悟可得矣 慧麟演僧維問 當假知之合與真知同異 初答 與真知異 麟再問 以何為異 再答假知者累伏故理變為用用變在理不恆其知真知者照寂故理常為用用常在理故永為真知 麟三問累不自除故求理以除累今假知之一合理實在心在心而累不去將何以去之乎 三答累起因心心觸成累累恒觸者心
趙城藏	三答覆者假也真者常也假知無常常知無假今豈可以假知之變而侵常知之真哉今整合賢於不合誠如來言竊有微證巫臣諫莊王之日物賒於已故理為情先及納夏姬之時已交於物故情居理上情理雲互物已相傾亦中知之率任也若以諫自為悟豈容納時之惑耶且南為聖也北為愚也背北向南非停北之謂向南背北非至南之稱然向南可以向南背北非是停北非是停北故愚可去矣可以至南故悟可得矣 慧麟演僧維問 當假知之合與真知同異 初答 與真知異 麟再問 以何為異 再答假知者累伏故理變為用用變在理不恆其知真知者照寂故理常為用用常在理故永為真知 麟二問累不自除故求理以除累今假知之一合理實在心在心而累不去將何以去之乎 三答累起因心心觸成累累恒觸者心

初雕藏	學而非悟今為玄句徒設無關於向情焉竊所未安何以言之夫道形天蘭幾二險絕學不漸宗曾無駟馳騁有端思不出位神崖曷由而登幾峰所從而超哉若熟務於有而坐體於無者辟猶揮毫鍾張之則功侔昇養之能不然明矣蓋同有非甚闕尚不可以觀此而善彼豈況乎有無之至背而反得以相通者耶又云累既未盡無不可得盡累之弊始可得無耳 問曰夫膏肓大道摧翰玄路莫尚於封有之累也蓋有不能祛有祛有者必無未有先盡有先盡有累然後得無也就如所言累盡則無今為累之自去實不無待實不無待則不能不無故無無貴矣如彼重闇自晞無假火日無假火日則不能不設亦明無尚焉落等級而奇頓悟將於是乎躋矣暇任之餘幸思嘉釋 釋慧琳問三復精議辨愷二家斟酌儒道實有懷於論矣至於去釋漸悟遺孔殆庶蒙竊或焉云有漸故是自
再雕藏	學而非悟今為玄句徒設無關於向情焉竊所未安何以言之夫道形天蘭幾二險絕學不漸宗曾無駟馳騁有端思不出位神崖曷由而登幾峰所從而超哉若熟務於有而坐體於無者辟猶揮毫鍾張之則功侔昇養之能不然明矣蓋同有非甚闕尚不可以觀此而善彼豈況乎有無之至背而反得以相通者耶又云累既未盡無不可得盡累之弊始可得無耳 問曰夫膏肓大道摧翰玄路莫尚於封有之累也蓋有不能祛有祛有者必無未有先盡有先盡有累然後得無也就如所言累盡則無今為累之自去實不無待實不無待則不能不無故無無貴矣如彼重闇自晞無假火日無假火日則不能不設亦明無尚焉落等級而奇頓悟將於是乎躋矣暇任之餘幸思嘉釋 釋慧琳問三復精議辨愷二家斟酌儒道實有懷於論矣至於去釋漸悟遺孔殆庶蒙竊或焉釋有漸故是自
趙城藏	學而非悟今為玄句徒設無關於向情焉竊所未安何以言之夫道形天蘭幾二險絕學不漸宗曾無駟馳騁有端思不出位神崖曷由而登幾峰所從而超哉若熟務於有而坐體於無者辟猶揮毫鍾張之則功侔昇養之能不然明矣蓋同有非甚闕尚不可以觀此而善彼豈況乎有無之至背而反得以相通者耶又云累既未盡無不可得盡累之弊始可得無耳 問曰夫膏肓大道摧翰玄路莫尚於封有之累也蓋有不能祛有祛有者必無未有先盡有先盡有累然後得無也就如所言累盡則無今為累之自去實不無待實不無待則不能不無故無無貴矣如彼重闇自晞無假火日無假火日則不能不設亦明無尚焉落等級而奇頓悟將於是乎躋矣暇任之餘幸思嘉釋 釋慧琳問三復精議辨愷二家斟酌儒道實有懷於論矣至於去釋漸悟遺孔殆庶蒙竊或焉釋有漸故是自

初雕藏	廣弘明集卷第六 第三十六張 形者漸孔之無漸亦是自道者無漸 何以知其然耶中人可以語上久習 可以移性孔氏之訓也一合於道場 非十地之所階釋家之唱也如此漸 絕文論二聖詳言豈獨夷東於教華 鉤於理將恐斥離之辯辭長於新論 乎畧道人難云絕欲由於體理當謂 日損者以理自悟也論曰道與俗反 本不相閑故因權以通之物濟則反 本問曰權之所假習心者亦終以為 慮乎為曉悟之曰與經之空理都自 反耶若其永背空談翻為未說若始 終相扶可修教而下下答維驕假知 中殊為藻豔但與立論有違假者以 旋迷喪理不以鑽文致惑苟南向可 以造越北背可以棄燕信燕北越南 矣慮空可以洗心損有可以祛累亦 有愚而空聖矣如此但當懃般若以 日忘瞻郢路而驟進復何憂於失所 乎將恐一悟之唱更蹟於南北之辟耶 答綱琳二法師 披覽雙難欣若對藻豐論博蔚然 滿目可謂勝人之口然未厭於心聊
再雕藏	廣弘明集卷第六 第三十六張 形者漸孔之無漸亦是自道者無漸 何以知其然耶中人可以語上久習 可以移性孔氏之訓也一合於道場 非十地之所階釋家之唱也如此漸 絕文論二聖詳言豈獨夷東於教華 鉤於理將恐斥離之辯辭長於新論 乎畧道人難云絕欲由於體理當謂 日損者以理自悟也論曰道與俗反 本不相閑故因權以通之物濟則反 本問曰權之所假習心者亦終以為 慮乎為曉悟之曰與經之空理都自 反耶若其永背空談翻為未說若始 終相扶可修教而下下答維驕假知 中殊為藻豔但與立論有違假者以 旋迷喪理不以鑽文致惑苟南向可 以造越北背可以棄燕信燕北越南 矣慮空可以洗心損有可以祛累亦 有愚而空聖矣如此但當懃般若以 日忘瞻郢路而驟進復何憂於失所 乎將恐一悟之唱更蹟於南北之辟耶 答綱琳二法師 披覽雙難欣若對藻豐論博蔚然 滿目可謂勝人之口然未厭於心聊
趙城藏	廣弘明集卷第六 第三十六張 形者漸孔之無漸亦是自道者無漸 何以知其然耶中人可以語上久習 可以移性孔氏之訓也一合於道場 非十地之所階釋家之唱也如此漸 絕文論二聖詳言豈獨夷東於教華 鉤於理將恐斥離之辯辭長於新論 乎畧道人難云絕欲由於體理當謂 日損者以理自悟也論曰道與俗反 本不相閑故因權以通之物濟則反 本問曰權之所假習心者亦終以為 慮乎為曉悟之曰與經之空理都自 反耶若其永背空談翻為未說若始 終相扶可修教而下下答維驕假知 中殊為藻豔但與立論有違假者以 旋迷喪理不以鑽文致惑苟南向可 以造越北背可以棄燕信燕北越南 矣慮空可以洗心損有可以祛累亦 有愚而空聖矣如此但當懃般若以 日忘瞻郢路而驟進復何憂於失所 乎將恐一悟之唱更蹟於南北之辟耶 答綱琳二法師 披覽雙難欣若對藻豐論博蔚然 滿目可謂勝人之口然未厭於心聊

<寫眞 10> 廣弘明集 第18卷 第30張

初雕藏	膝執筆增懷真不可言 王弘敬謂答王衛軍問 問曰由教而信而無入照之分則是 闇信聖人耶若闇信聖理不關心政 可非聖之尤何由有日進之功 答曰顏子體二未及於照則向善已 上莫非闇信但教有可由之理我有 求理之志故曰開心賜以之二回以 之十豈直免尤而已實有日進之功 問曰覺知為假知者則非不知矣但 見理向淺未能常用耳雖不得與真 知等照然寧可謂無入照之分耶若 覺知未是見理豈得去理覺為用又 不知以何稱知 答曰不知而稱知者政以假知得名 耳假者為名非覺知何不恒其用豈 常之謂既非常用所以交賒相傾故 諫人則言政理悅已則犯所知若以 諫時為照豈有悅時之犯故知言理 者浮談犯知者沈惑推此而判自聖 已下無淺深之照然中人之性有崇 替之心矣 問曰教為用而累伏為去何伏耶若
再雕藏	膝執筆增懷真不可言 王弘敬謂答王衛軍問 問曰由教而信而無入照之分則是 闇信聖人耶若闇信聖理不關心政 可非聖之尤何由有日進之功 答曰顏子體二未及於照則向善已 上莫非闇信但教有可由之理我有 求理之志故曰開心賜以之二回以 之十豈直免尤而已實有日進之功 問曰覺知為假知者則非不知矣但 見理向淺未能常用耳雖不得與真 知等照然寧可謂無入照之分耶若 覺知未是見理豈得去理覺為用又 不知以何稱知 答曰不知而稱知者政以假知得名 耳假者為名非覺知何不恒其用豈 常之謂既非常用所以交賒相傾故 諫人則言政理悅已則犯所知若以 諫時為照豈有悅時之犯故知言理 者浮談犯知者沈惑推此而判自聖 已下無淺深之照然中人之性有崇 替之心矣 問曰教為用而累伏為去何伏耶若
趙城藏	膝執筆增懷真不可言 王弘敬謂答王衛軍問 問曰由教而信而無入照之分則是 闇信聖人耶若闇信聖理不關心政 可非聖之尤何由有日進之功 答曰顏子體二未及於照則向善已 上莫非闇信但教有可由之理我有 求理之志故曰開心賜以之二回以 之十豈直免尤而已實有日進之功 問曰覺知為假知者則非不知矣但 見理向淺未能常用耳雖不得與真 知等照然寧可謂無入照之分耶若 覺知未是見理豈得去理覺為用又 不知以何稱知 答曰不知而稱知者政以假知得名 耳假者為名非覺知何不恒其用豈 常之謂既非常用所以交賒相傾故 諫人則言政理悅已則犯所知若以 諫時為照豈有悅時之犯故知言理 者浮談犯知者沈惑推此而判自聖 已下無淺深之照然中人之性有崇 替之心矣 問曰教為用而累伏為去何伏耶若

初雕藏	皆介又云從心生心如從穀生穀以是故知必有過去無因之各又云六識之意識依已滅之意為本而生意識又正見名過去業未來中果法也又十力中第二力知三世諸業又云若無過去業則無三途報又云學人若在有漏心中則不應名為聖人以此諸比因知不應無過去若無過去未來則非通理經法所不許又十二因緣是佛法之深者若定有過去未來則與此法相違所以者何如有穀子地水時節牙根得生若先已定有則無所待有若先有則不名從緣而生又若先有則是常倒是故不得定有不得定無有無之說唯時所宜耳以過去法起行業得定無有無耶又云今不與目對不得言有雅論之通甚有佳致又大品所明過去如不離未來現在如未來現在如亦不離過去如此亦不言無也此實是經中之大要俟得高對通復盡之通不住法住般若衆生之所以不階道者有著故也是以聖人之教恒以去著為事故言以
再雕藏	皆介又云從心生心如從穀生穀以是故知必有過去無因之各又云六識之意識依已滅之意為本而生意識又正見名過去業未來中果法也又十力中第二力知三世諸業又云若無過去業則無三途報又云學人若在有漏心中則不應名為聖人以此諸比因知不應無過去若無過去未來則非通理經法所不許又十二因緣是佛法之深者若定有過去未來則與此法相違所以者何如有穀子地水時節牙根得生若先已定有則無所待有若先有則不名從緣而生又若先有則是常倒是故不得定有不得定無有無之說唯時所宜耳以過去法起行業不得言無又云今不與目對不得言有雅論之通甚有佳致又大品所明過去如不離未來現在如未來現在如亦不離過去如此亦不言無也此實是經中之大要俟得高對通復盡之通不住法住般若衆生之所以不階道者有著故也是以聖人之教恒以去著為事故言以
趙城藏	皆介又云從心生心如從穀生穀以是故知必有過去無因之各又云六識之意識依已滅之意為本而生意識又正見名過去業未來中果法也又十力中第二力知三世諸業又云若無過去業則無三途報又云學人若在有漏心中則不應名為聖人以此諸比因知不應無過去若無過去未來則非通理經法所不許又十二因緣是佛法之深者若定有過去未來則與此法相違所以者何如有穀子地水時節牙根得生若先已定有則無所待有若先有則不名從緣而生又若先有則是常倒是故不得定有不得定無有無之說唯時所宜耳以過去法起行業不得言無又云今不與目對不得言有雅論之通甚有佳致又大品所明過去如不離未來現在如未來現在如亦不離過去如此亦不言無也此實是經中之大要俟得高對通復盡之通不住法住般若衆生之所以不階道者有著故也是以聖人之教恒以去著為事故言以

初雕藏	斷常常猶不可況復斷耶然則有無之肆乃是邊見之所存故中論云不破世諦故則不破真諦又論云諸法若實則無二諦諸法若空則無罪福若無罪福凡聖無泮二苟無泮道何所益由臣闇昧未悟宗極唯願仁慈重加誨喻 姚興答 卿所難問引喻兼富理極深致實非膚淺所能具答今為當都格以相酬耳卿引般若經云若有衆生遇斯光者必得無上道即經所言未聞有涼而得見光明者如釋迦放大光明普照十方當斯之時經不言有群品而得見其恠而異之者皆是普明之徒以斯言之定不為群小也卿若以衆生為疑者百億菩薩豈非衆生之謂耶然經復云普明之誦釋迦皆與善男子善女人持諸華香來供養釋迦及致供養之徒自應普蒙其潤也但光明之作本不為善男子善女人所得蒙餘波者其猶蠅附驥尾得至千里之舉耳
再雕藏	斷常常猶不可況復斷耶然則有無之肆乃是邊見之所存故中論云不破世諦故則不破真諦又論云諸法若實則無二諦諸法若空則無罪福若無罪福凡聖無泮二苟無泮道何所益由臣闇昧未悟宗極唯願仁慈重加誨喻 姚興答 卿所難問引喻兼富理極深致實非膚淺所能具答今為當都格以相酬耳卿引般若經云若有衆生遇斯光者必得無上道即經所言未聞有凡涼而得見光明者如釋迦放大光明普照十方當斯之時經不言有群品而得見其恠而異之者皆是普明之徒以斯言之定不為群小也卿若以衆生為疑者百億菩薩豈非衆生之謂耶然經復云普明之誦釋迦皆與善男子善女人持諸華香來供養釋迦及致供養之徒自應普蒙其潤也但光明之作本不為善男子善女人所得蒙餘波者其猶蠅附驥尾得至千里之舉耳
趙城藏	斷常常猶不可況復斷耶然則有無之肆乃是邊見之所存故中論云不破世諦故則不破真諦又論云諸法若實則無二諦諸法若空則無罪福若無罪福凡聖無泮二苟無泮道何所益由臣闇昧未悟宗極唯願仁慈重加誨喻 姚興答 卿所難問引喻兼富理極深致實非膚淺所能具答今為當都格以相酬耳卿引般若經云若有衆生遇斯光者必得無上道即經所言未聞有凡涼而得見光明者如釋迦放大光明普照十方當斯之時經不言有群品而得見其恠而異之者皆是普明之徒以斯言之定不為群小也卿若以衆生為疑者百億菩薩豈非衆生之謂耶然經復云普明之誦釋迦皆與善男子善女人持諸華香來供養釋迦及致供養之徒自應普蒙其潤也但光明之作本不為善男子善女人所得蒙餘波者其猶蠅附驥尾得至千里之舉耳

初雕藏	廣弘明集卷第十八 貢賢於仲尼跛鼈陵於駿驥欲觀渤 澥更保涓流何異蔽目而視毛端却 行以求郢路非所應也 且王導周顒率輔之冠蓋王濛謝尚 人倫之羽儀次則郗超王謐劉琨謝 容等並江左英彥七十餘人皆學綜 九流才映千古咸言性靈真要可以 持身濟俗者莫過於釋氏之教及宋 文帝與何尚之王玄保等亦有此談 如其字內並遵斯要吾當坐致太平 矣尚之又云十善暢則人天興五戒 行則鬼畜絕其實濟世之玄範豈造 次而可論乎中含學富才高文華理 切秦懸一字蜀挂千金何以當茲奇 麗也不量管見輕陳鄙俚敢此有酬 示麻續組耳李舍人得琳重釋渙然 神解重疑頓消仍以斯論廣于視聽 故得二文雙顯各其志乎
再雕藏	廣弘明集卷第十八 貢賢於仲尼跛鼈陵於駿驥欲觀渤 澥更保涓流何異蔽目而視毛端却 行以求郢路非所應也 且王導周顒率輔之冠蓋王濛謝尚 人倫之羽儀次則郗超王謐劉琨謝 容等並江左英彥七十餘人皆學綜 九流才映千古咸言性靈真要可以 持身濟俗者莫過於釋氏之教及宋 文帝與何尚之王玄保等亦有此談 如其字內並遵斯要吾當坐致太平 矣尚之又云十善暢則人天興五戒 行則鬼畜絕其實濟世之玄範豈造 次而可論乎中含學富才高文華理 切秦懸一字蜀挂千金何以當茲奇 麗也不量管見輕陳鄙俚敢此有酬 示麻續組耳李舍人得琳重釋渙然 神解重疑頓消仍以斯論廣于視聽 故得二文雙顯各其志乎 癸卯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 勅彫造
趙城藏	廣弘明集卷第十八 貢賢於仲尼跛鼈陵於駿驥欲觀渤 澥更保涓流何異蔽目而視毛端却 行以求郢路非所應也 且王導周顒率輔之冠蓋王濛謝尚 人倫之羽儀次則郗超王謐劉琨謝 容等並江左英彥七十餘人皆學綜 九流才映千古咸言性靈真要可以 持身濟俗者莫過於釋氏之教及宋 文帝與何尚之王玄保等亦有此談 如其字內並遵斯要吾當坐致太平 矣尚之又云十善暢則人天興五戒 行則鬼畜絕其實濟世之玄範豈造 次而可論乎中含學富才高文華理 切秦懸一字蜀挂千金何以當茲奇 麗也不量管見輕陳鄙俚敢此有酬 示麻續組耳李舍人得琳重釋渙然 神解重疑頓消仍以斯論廣于視聽 故得二文雙顯各其志乎

初雕藏	何者賢之為愚蓋由知而不知也愚者所知則少賢者所知則多而万物交加羣方緬瞻情性曉昧理趣深玄由其塗求其理既有曉昧之異遂成高下之差自此相傾品級殊峻窮其原本盡其宗極手相推仰應有所窮其路既窮無微不盡又不得謂不然也且五情各有分域耳目各有司存心運則形忘目用則耳廢何則情靈淺弱心慮難擾一念而無無由可至既不能無紛紜遽襲一念未成他端乎起乎起眾端復同前矣不相兼之由由於淺惑惑淺為病病於滯有不淺不惑出於無忘以此無得此無忘照自凡夫至于正覺始惑於不惑不兼至能無又不得謂不得也又具蟲友促舍靈靡二或朝生夕殞或不識春秋自斯而進脩短不一既有其短豈得無長虛用損年善攝增壽善而善焉得無之又不得謂之不然也生既可夭則壽不可無矣既無矣則生不可極形神之別斯既然矣形既可養神寧獨異神妙形應較然有辯養形
再雕藏	何者賢之為愚蓋由知而不知也愚者所知則少賢者所知則多而万物交加羣方緬瞻情性曉昧理趣深玄由其塗求其理既有曉昧之異遂成高下之差自此相傾品級殊峻窮其原本盡其宗極手相推仰應有所窮其路既窮無微不盡又不得謂不然也且五情各有分域耳目各有司存心運則形忘目用則耳廢何則情靈淺弱心慮難擾一念而無無由可至既不能無紛紜遽襲一念未成他端乎起乎起眾端復同前矣不相兼之由由於淺惑惑淺為病病於滯有不淺不惑出於無忘以此無得此無忘照自凡夫至于正覺始惑於不惑不兼至能無又不得謂不然也又具蟲友促舍靈靡二或朝生夕殞或不識春秋自斯而進脩短不一既有其短豈得無長虛用損年善攝增壽善而善焉得無之又不得謂之不然也生既可夭則壽不可無矣既無矣則生不可極形神之別斯既然矣形既可養神寧獨異神妙形應較然有辯養形
趙城藏	何者賢之為愚蓋由知而不知也愚者所知則少賢者所知則多而万物交加羣方緬瞻情性曉昧理趣深玄由其塗求其理既有曉昧之異遂成高下之差自此相傾品級殊峻窮其原本盡其宗極手相推仰應有所窮其路既窮無微不盡又不得謂不然也且五情各有分域耳目各有司存心運則形忘目用則耳廢何則情靈淺弱心慮難擾一念而無無由可至既不能無紛紜遽襲一念未成他端乎起乎起眾端復同前矣不相兼之由由於淺惑惑淺為病病於滯有不淺不惑出於無忘以此無得此無忘照自凡夫至于正覺始惑於不惑不兼至能無又不得謂不然也又具蟲友促舍靈靡二或朝生夕殞或不識春秋自斯而進脩短不一既有其短豈得無長虛用損年善攝增壽善而善焉得無之又不得謂之不然也生既可夭則壽不可無矣既無矣則生不可極形神之別斯既然矣形既可養神寧獨異神妙形應較然有辯養形

初雕藏	圖義許道以身心口自謀形影相吊 振衣警錫尋波討源出玉闕而遠遊 指金河而一息稽疑梵宇探幽洞微 旋化神州揚真跡謬遺筌闕典大備 茲展方等圓宗彌廣前烈而明勝義 妙絕環中之中真性真空極踰方外 之外以有取也有取喪其真統無求 之无求盡其實拂二邊之相累遺求 易泊其深重空何以臻其極要矣妙 矣至哉大哉契之於心然後以之為 法在心為法形言為教法有自相共 相教乃遮詮表詮粹旨冲宗豈造次 所能觀縷法師凝神俊智詳正始末 緇熙玄籍大啓幽關秘希聲應扣擊 之大小廓義海納朝宗之巨細於是 殊方碩德異域高僧伏膺問道蓄疑 請益固已飲和滿腹莫測其淺深聆 音駁聽孰知其遠近至於因明小道 現以蓋微斯乃指初學之方隅舉立 論之標幟至若靈樞秘鍵妙本成功 備諸奧冊非此所云也呂奉御以風 神爽拔早擅多能器宇該通夙彰傳 物弋獵開墳之典鈞深壞壁之書觸
再雕藏	圖義許道以身心口自謀形影相吊 振衣警錫尋波討源出玉闕而遠遊 指金河而一息稽疑梵宇探幽洞微 旋化神州揚真跡謬遺筌闕典大備 茲展方等圓宗彌廣前烈而明勝義 妙絕環中之中真性真空極踰方外 之外以有取也有取喪其真統無求 之无求盡其實拂二邊之相累遺求 易泊其深重空何以臻其極要矣妙 矣至哉大哉契之於心然後以之為 法在心為法形言為教法有自相共 相教乃遮詮表詮粹旨冲宗豈造次 所能觀縷法師凝神俊智詳正始末 緇熙玄籍大啓幽關秘希聲應扣擊 之大小廓義海納朝宗之巨細於是 殊方碩德異域高僧伏膺問道蓄疑 請益固已飲和滿腹莫測其淺深聆 音駁聽孰知其遠近至於因明小道 現以蓋微斯乃指初學之方隅舉立 論之標幟至若靈樞秘鍵妙本成功 備諸奧冊非此所云也呂奉御以風 神爽拔早擅多能器宇該通夙彰傳 物弋獵開墳之典鈞深壞壁之書觸
趙城藏	圖義許道以身心口自謀形影相吊 振衣警錫尋波討源出玉闕而遠遊 指金河而一息稽疑梵宇探幽洞微 旋化神州揚真跡謬遺筌闕典大備 茲展方等圓宗彌廣前烈而明勝義 妙絕環中之中真性真空極踰方外 之外以有取也有取喪其真統無求 之无求盡其實拂二邊之相累遺求 易泊其深重空何以臻其極要矣妙 矣至哉大哉契之於心然後以之為 法在心為法形言為教法有自相共 相教乃遮詮表詮粹旨冲宗豈造次 所能觀縷法師凝神俊智詳正始末 緇熙玄籍大啓幽關秘希聲應扣擊 之大小廓義海納朝宗之巨細於是 殊方碩德異域高僧伏膺問道蓄疑 請益固已飲和滿腹莫測其淺深聆 音駁聽孰知其遠近至於因明小道 現以蓋微斯乃指初學之方隅舉立 論之標幟至若靈樞秘鍵妙本成功 備諸奧冊非此所云也呂奉御以風 神爽拔早擅多能器宇該通夙彰傳 物弋獵開墳之典鈞深壞壁之書觸

初雕藏	西明寺僧道宣等序佛教隆替事簡 諸宰輔等狀一首 列子云周穆王時西極有化人來反 山川移城邑千變萬化不可窮極穆 王歎之若^{神聖之}聖此則佛化之初及也朱 仕行釋道安經錄云秦始皇時西 域沙門十八人來化始皇弗從禁之 夜有金罍丈六人破獄出之始皇稽 首謝焉漢書云武帝元狩中開 西域獲金人率長丈餘列之甘泉宮 帝以為大神燒香禮拜後遣張騫往 大夏尋之云有身毒國即天竺也彼 謂浮屠即佛也此初知佛名相云 成帝都水使者劉向云向檢藏書往 往見有佛經此則周秦已行始皇焚 之不盡哀帝元壽中使景憲往天 月氏國因誦浮屠經還于時漢境稍 行齋戒據此曾聞佛法中途潛隱重 此中興 後漢明帝永平中上夢金人飛行殿 前乃使秦景等往西域尋佛法遂 獲三寶東傳維陽畫釋迦立像是佛 寶也翻四十二章經是法寶也迦
再雕藏	西明寺僧道宣等序佛教隆替事簡 諸宰輔等狀一首 列子云周穆王時西極有化人來反 山川移城邑千變萬化不可窮極穆 王歎之若^{神聖之}聖此則佛化之初及也朱 仕行釋道安經錄云秦始皇時西 域沙門十八人來化始皇弗從禁之 夜有金罍丈六人破獄出之始皇稽 首謝焉漢書云武帝元狩中開 西域獲金人率長丈餘列之甘泉宮 帝以為大神燒香禮拜後遣張騫往 大夏尋之云有身毒國即天竺也彼 謂浮屠即佛也此初知佛名相云 成帝都水使者劉向云向檢藏書往 往見有佛經此則周秦已行始皇焚 之不盡哀帝元壽中使景憲往天 月氏國因誦浮屠經還于時漢境稍 行齋戒據此曾聞佛法中途潛隱重 此中興 後漢明帝永平中上夢金人飛行殿 前乃使秦景等往西域尋佛法遂 獲三寶東傳維陽畫釋迦立像是佛 寶也翻四十二章經是法寶也迦
趙城藏	西明寺僧道宣等序佛教隆替事簡 諸宰輔等狀一首 列子云周穆王時西極有化人來反 山川移城邑千變萬化不可窮極穆 王歎之若^{神聖之}聖此則佛化之初及也朱 仕行釋道安經錄云秦始皇時西 域沙門十八人來化始皇弗從禁之 夜有金罍丈六人破獄出之始皇稽 首謝焉漢書云武帝元狩中開 西域獲金人率長丈餘列之甘泉宮 帝以為大神燒香禮拜後遣張騫往 大夏尋之云有身毒國即天竺也彼 謂浮屠即佛也此初知佛名相云 成帝都水使者劉向云向檢藏書往 往見有佛經此則周秦已行始皇焚 之不盡哀帝元壽中使景憲往天 月氏國因誦浮屠經還于時漢境稍 行齋戒據此曾聞佛法中途潛隱重 此中興 後漢明帝永平中上夢金人飛行殿 前乃使秦景等往西域尋佛法遂 獲三寶東傳維陽畫釋迦立像是佛 寶也翻四十二章經是法寶也迦

初雕藏	王衛軍重答書 更尋前答起悟亦不知所以為異政當今已送示生公此間道人故有小不同小涼當共面盡脫有屑言更白面寫未由寄之於此所散猶多竺道生答王衛軍書 究尋謝永嘉論都無間然有同似若妙善不能不以為欣檀越難言甚要切想尋必佳通耳且聊試略取論意以伸欣悅之懷以為苟若不知焉能有信然則由教而信非不知也但資彼之知理在我表資彼可以至我庸得無切於日進未是我知何由有分於入照豈不以見理於外非復全昧知不自中未為能照耶 與安成侯嵩書 姚興 吾曾以已所懷疏條摩訶衍諸義畱與什公平詳厥衷遂有衰故不復能斷理未久什公尋復致變自介喪戎相尋無復意事遂忘棄之近以當遣使送像欲與卿作疏箱篋中忽得前所條本末今送示卿徐徐尋撫若於卿有所不足者便可致難也見卿未
再雕藏	王衛軍重答書 更尋前答起悟亦不知所以為異政當今已送示生公此間道人故有小不同小涼當共面盡脫有屑言更白面寫未由寄之於此所散猶多竺道生答王衛軍書 究尋謝永嘉論都無間然有同似若妙善不能不以為欣檀越難言甚要切想尋必佳通耳且聊試略取論意以伸欣悅之懷以為苟若不知焉能有信然則由教而信非不知也但資彼之知理在我表資彼可以至我庸得無切於日進未是我知何由有分於入照豈不以見理於外非復全昧知不自中未為能照耶 與安成侯嵩書 姚興 吾曾以已所懷疏條摩訶衍諸義畱與什公平詳厥衷遂有衰故不復能斷理未久什公尋復致變自介喪戎相尋無復意事遂忘棄之近以當遣使送像欲與卿作疏箱篋中忽得前所條本末今送示卿徐徐尋撫若於卿有所不足者便可致難也見卿未
趙城藏	王衛軍重答書 更尋前答起悟亦不知所以為異政當今已送示生公此間道人故有小不同小涼當共面盡脫有屑言更白面寫未由寄之於此所散猶多竺道生答王衛軍書 究尋謝永嘉論都無間然有同似若妙善不能不以為欣檀越難言甚要切想尋必信通耳且聊試略取論意以伸欣悅之懷以為苟若不知焉能有信然則由教而信非不知也但資彼之知理在我表資彼可以至我庸得無切於日進未是我知何由有分於入照豈不以見理於外非復全昧知不自中未為能照耶 與安成侯嵩書 姚興 吾曾以已所懷疏條摩訶衍諸義畱與什公平詳厥衷遂有衰故不復能斷理未久什公尋復致變自介喪戎相尋無復意事遂忘棄之近以當遣使送像欲與卿作疏箱篋中忽得前所條本末今送示卿徐徐尋撫若於卿有所不足者便可致難也見卿未

初雕藏	者蓋分別之小術般若者乃無知之 大宗分別緣起所以強稱先覺無知 性寂於是假謂佛陀分別既影於外 有數無知則於內無心於外有數分 別之見不亡於內無心誘引之功莫 遺甚秋毫之方巨岳踰尺鷃之比大 鵬不可同年而語矣莊生云吾亡是 非不亡彼此庸詎然乎所以小智不 及大智小率不及大率惟彭祖之特 聞非衆人之所逮也況三世之理不 差二諦之門可驗是以聖立因果凡 夫有得聖之期道稱自然學者無成 道之望從微至著憑繕尅而方研乘 因趣果藉熏脩而始見彼既知而故 問余亦述而略答詳夫一音普被弱 喪由是同歸四智廣覃真如以之自 顯自顯也者惟微惟彰同歸也者孰 來孰去蓋知隨業受報二鳥不嫌其 短長因濕致生兩蟲無擇於飛化不 存待焉無待明即待之非待矣請試 論之昔闍澤有言孔老法天諸天法 佛洪範九疇承天制用上方七善奉 佛慈風若將孔老以定聖尊可謂子
再雕藏	者蓋分別之小術般若者乃無知之 大宗分別緣起所以強稱先覺無知 性寂於是假謂佛陀分別既影於外 有數無知則於內無心於外有數分 別之見不亡於內無心誘引之功莫 遺甚秋毫之方巨岳踰尺鷃之比大 鵬不可同年而語矣莊生云吾亡是 非不亡彼此庸詎然乎所以小智不 及大智小率不及大率惟彭祖之特 聞非衆人之所逮也況三世之理不 差二諦之門可驗是以聖立因果凡 夫有得聖之期道稱自然學者無成 道之望從微至著憑繕尅而方研乘 因趣果藉熏脩而始見彼既知而故 問余亦述而略答詳夫一音普被弱 喪由是同歸四智廣覃真如以之自 顯自顯也者惟微惟彰同歸也者孰 來孰去蓋知隨業受報二鳥不嫌其 短長因濕致生兩蟲無擇於飛化不 存待焉無待明即待之非待矣請試 論之昔闍澤有言孔老法天諸天法 佛洪範九疇承天制用上方十善奉 佛慈風若將孔老以定聖尊可謂子
趙城藏	者蓋分別之小術般若者乃無知之 大宗分別緣起所以強稱先覺無知 性寂於是假謂佛陀分別既影於外 有數無知則於內無心於外有數分 別之見不亡於內無心誘引之功莫 遺甚秋毫之方巨岳踰尺鷃之比大 鵬不可同年而語矣莊生云吾亡是 非不亡彼此庸詎然乎所以小智不 及大智小率不及大率惟彭祖之特 聞非衆人之所逮也況三世之理不 差二諦之門可驗是以聖立因果凡 夫有得聖之期道稱自然學者無成 道之望從微至著憑繕尅而方研乘 因趣果藉熏脩而始見彼既知而故 問余亦述而略答詳夫一音普被弱 喪由是同歸四智廣覃真如以之自 顯自顯也者惟微惟彰同歸也者孰 來孰去蓋知隨業受報二鳥不嫌其 短長因濕致生兩蟲無擇於飛化不 存待焉無待明即待之非待矣請試 論之昔闍澤有言孔老法天諸天法 佛洪範九疇承天制用上方十善奉 佛慈風若將孔老以定聖尊可謂子

初雕藏	未遍平言无断肉語今日此經言何 所道所以唱此草履文者本意乃不 在此正為此二十三日法雲法師講 涅槃斷肉事于時僧正慧超法師 師難云若經文究竟斷一切肉乃至 自死不得食者此則同互捷斷皮革 不得著草履若開皮革得著草履者 亦應開食肉法雲法師乃已有通釋 而二法師難意未已于時自仍通云 若是聖人故自不著此物若中行人 亦不著此著此皆下行人所以不同 互捷者語有所舍若无麻紵之鄉亦 有開皮革義論有麻紵處大慈者乃 實應不著但此事與食肉不得類同凡 著一草履經久不壞若食噉眾生就 一食中便害无量身命況日日食咀 數若恒沙亦不可得用草履以並斷 肉于時諸僧乃无復復恐諸小僧 執以為疑方成巨蔽所以唱此不受 草履文正欲釋一日所疑非開前制 凡噉肉者是大罪障經文道昔與眾 生經為父母親屬眾僧那不思此猶 忍食噉眾生不能投身餓虎割肉貿
再雕藏	未遍平言无断肉語今日此經言何 所道所以唱此草履文者本意乃不 在此正為此二十三日法雲法師講 涅槃斷肉事于時僧正慧超法師 師難云若經文究竟斷一切肉乃至 自死不得食者此則同互捷斷皮革 不得著草履若開皮革得著草履者 亦應開食肉法雲法師乃已有通釋 而二法師難意未已于時自仍通云 若是聖人故自不著此物若中行人 亦不著此著此皆下行人所以不同 互捷者語有所舍若无麻紵之鄉亦 有開皮革義論有麻紵處大慈者乃 實應不著但此事與食肉不得類同凡 著一草履經久不壞若食噉眾生就 一食中便害无量身命況日日食咀 數若恒沙亦不可得用草履以並斷 肉于時諸僧乃无復復恐諸小僧 執以為疑方成巨蔽所以唱此不受 草履文正欲釋一日所疑非開前制 凡噉肉者是大罪障經文道昔與眾 生經為父母親屬眾僧那不思此猶 忍食噉眾生不能投身餓虎割肉貿
趙城藏	未遍平言无断肉語今日此經言何 所道所以唱此草履文者本意乃不 在此正為此二十三日法雲法師講 涅槃斷肉事于時僧正慧超法師 師難云若經文究竟斷一切肉乃至 自死不得食者此則同互捷斷皮革 不得著草履若開皮革得著草履者 亦應開食肉法雲法師乃已有通釋 而二法師難意未已于時自仍通云 若是聖人故自不著此物若中行人 亦不著此著此皆下行人所以不同 互捷者語有所舍若无麻紵之鄉亦 有開皮革義論有麻紵處大慈者乃 實應不著但此事與食肉不得類同凡 著一草履經久不壞若食噉眾生就 一食中便害无量身命況日日食咀 數若恒沙亦不可得用草履以並斷 肉于時諸僧乃无復復恐諸小僧 執以為疑方成巨蔽所以唱此不受 草履文正欲釋一日所疑非開前制 凡噉肉者是大罪障經文道昔與眾 生經為父母親屬眾僧那不思此猶 忍食噉眾生不能投身餓虎割肉貿

初雕藏	而不能救又是大覺於羣生无益而天下不覺三不經也斯又巨謗之大佐通人達士豈其言哉稂曲醜事豈照此矣然大盜取國天下之罪人行姦然子自是佛法之賊濁現則損於四國來則沉於三途而謂僧居悲然加誣之太甚也又云大覺無慈又云於生無益斯並以愚量智以聖齊凡抗大覺之成化失淳人之弘善可謂蟪蛄有相輪之勇井蛙滯坎井之心哉 濟云胡法慳貪惟財是与直是行三毒而害方方未見修六度而隆三寶四不經也且財食厚生貪夫之所沒積而能散廉士之恒情六度檀捨為初惟佛宗而立位三寶佛為教主乃正覺之流慈無佛法安知六度之切絕慈風豈識三寶為正化濟以不得其志沒齒陷之但增貪覺以各人未顯獸身以祛滯俗中恒士尚不虛言濟寔鄙夫輕馳才筆獨不聞顧雍拜万户封家人不知葛亮受三郡賞廬無尺綰謝安平百万賊慨然改容能仁捨四有帝遺如涕唾斯實錄也况復
再雕藏	而不能救又是大覺於羣生无益而天下不覺三不經也斯又巨謗之大佐通人達士豈其言哉稂曲醜事豈照此矣然大盜取國天下之罪人行姦然子自是佛法之賊濁現則損於四國將來則沉於三途而謂僧居悲然加誣之太甚也又云大覺於生無益斯並以愚量智以聖齊凡抗大覺之成化失淳人之弘善可謂蟪蛄有相輪之勇井蛙滯坎井之心哉 濟云胡法慳貪惟財是与直是行三毒而害方方未見修六度而隆三寶四不經也且財食厚生貪夫之所沒積而能散廉士之恒情六度檀捨為初惟佛宗而立位三寶佛為教主乃正覺之流慈無佛法安知六度之切絕慈風豈識三寶為正化濟以不得其志沒齒陷之但增貪覺以各人未顯獸身以祛滯俗中恒士尚不虛言濟寔鄙夫輕馳才筆獨不聞顧雍拜万户封家人不知葛亮受三郡賞廬無尺綰謝安平百万賊慨然改容能仁捨四有諦遺如涕唾斯實錄也况復
趙城藏	而不能救又是大覺於羣生无益而天下不覺三不經也斯又巨謗之大佐通人達士豈其言哉稂曲醜事豈照此矣然大盜取國天下之罪人行姦然子自是佛法之賊濁現則損於四國將來則沉於三途而謂僧居悲然加誣之太甚也又云大覺於生無益斯並以愚量智以聖齊凡抗大覺之成化失淳人之弘善可謂蟪蛄有相輪之勇井蛙滯坎井之心哉 濟云胡法慳貪惟財是与直是行三毒而害方方未見修六度而隆三寶四不經也且財食厚生貪夫之所沒積而能散廉士之恒情六度檀捨為初惟佛宗而立位三寶佛為教主乃正覺之流慈無佛法安知六度之切絕慈風豈識三寶為正化濟以不得其志沒齒陷之但增貪覺以各人未顯獸身以祛滯俗中恒士尚不虛言濟寔鄙夫輕馳才筆獨不聞顧雍拜万户封家人不知葛亮受三郡賞廬無尺綰謝安平百万賊慨然改容能仁捨四有帝遺如涕唾斯實錄也况復

初雕藏	處殊途不可一述易稱攝精佛則絕 慈固知李氏道門相結仇讐日夕共 會順易陰陽不順則與佛何殊若順 固其恒俗何為學僧守靜絕慈無為 以事討論纏綿自顯如上已述迷者 未尋且李耳子孫遍於天下張陵餘 胤散列諸州祖宗遺緒如何輒異若異 其先斯為絕嗣三千之罪莫有高之況 復黃書服氣三五七九之經上下相 和四眼二舌之教不可削也佛教不 介慈是過原先必戒之方祛俗滯此 則佛道之分途也高識者體之 又云請同孔老門人拜謁王目者不 知奔出此語何以自陳毀僧傲親抗 君非為忠孝固知道士常拜君親如 何自見道士從僧抗礼不能自化其 類何用彈人實而言之道士由來拜 謁竊形濫吹冒入出俗之儔致有黃 巾乃張角之風也法儀抗礼是繼徒 之範也至如李老之服本襲朝章冠 履同蘭臺太史揖讓等大夫之儀也 如何門人高抗先師之位仰則沙門 之法都不可也會逢寬政置不緦之
再雕藏	德義未隆下忽公卿抗衡天子如目 愚見請同老孔弟子之例拜謁王目 編於朝典者奔奏如此未足理論出 處殊途不可一述易稱攝精佛則絕 慈固知李氏道門相結仇讐日夕共 會順易陰陽不順則與佛何殊若順 固其恒俗何為學僧守靜絕慈無為 以事討論纏綿自顯如上已述迷者 未尋且李耳子孫遍於天下張陵餘 胤散列諸州祖宗遺緒如何輒異若異 其先斯為絕嗣三千之罪莫有高之況 復黃書服氣三五七九之經上下相 和四眼二舌之教不可削也佛教不 介慈是過原先必戒之方祛俗滯此 則佛道之分途也高識者體之 又云請同孔老門人拜謁王目者不 知奔出此語何以自陳毀僧傲親抗 君非為忠孝固知道士常拜君親如 何自見道士從僧抗礼不能自化其 類何用彈人實而言之道士由來拜 謁竊形濫吹冒入出俗之儔致有黃 巾乃張角之風也法儀抗礼是繼徒 之範也至如李老之服本襲朝章冠 履同蘭臺太史揖讓等大夫之儀也 如何門人高抗先師之位仰則沙門 之法都不可也會逢寬政置不緦之
趙城藏	處殊途不可一述易稱攝精佛則絕 慈固知李氏道門相結仇讐日夕共 會順易陰陽不順則與佛何殊若順 固其恒俗何為學僧守靜絕慈無為 以事討論纏綿自顯如上已述迷者 未尋且李耳子孫遍於天下張陵餘 胤散列諸州祖宗遺緒如何輒異若異 其先斯為絕嗣三千之罪莫有高之況 復黃書服氣三五七九之經上下相 和四眼二舌之教不可削也佛教不 介慈是過原先必戒之方祛俗滯此 則佛道之分途也高識者體之 又云請同孔老門人拜謁王目者不 知奔出此語何以自陳毀僧傲親抗 君非為忠孝固知道士常拜君親如 何自見道士從僧抗礼不能自化其 類何用彈人實而言之道士由來拜 謁竊形濫吹冒入出俗之儔致有黃 巾乃張角之風也法儀抗礼是繼徒 之範也至如李老之服本襲朝章冠 履同蘭臺太史揖讓等大夫之儀也 如何門人高抗先師之位仰則沙門 之法都不可也會逢寬政置不緦之

<寫眞 22> 廣弘明集 第18卷 第33張

初雕藏	日並可以當言笑 吾前試通聖人三達觀以諮什公公 尋有荅今并送往請此事皆是昔日 之意如今都無情懷如何矣 通三世論 曾問諸法師明三世或有或無莫適 所定此亦是法中一段處所而有 無不泮情每慨之是以忽疏野懷聊試 孟浪言之誠知孟浪之言不足以會 理然肯矜之中欲有少許意子不能 嘿已輒疏條相呈匠者可為折衷余 以為三世一統循環為用過去雖滅 其理常在所以非如阿毗曇注 言五陰塊然猶若足之履地真足雖 往厥跡猶存當來如火之在木木中 欲言有火耶視之不可見欲言無耶 緣合火出經又云聖人見三世若其 無也聖無所見若言有耶則犯常嫌 明過去未來雖無眼對理恒相因苟 因理不絕聖見三世無所疑矣 什法師荅 雅論大通甚佳去來定無此作不通 佛說色陰三世和合總名為色五陰
再雕藏	日並可以當言笑 吾前試通聖人三達觀以諮什公公 尋有荅今并送往請此事皆是昔日 之意如今都無情懷如何矣 通三世論 曾問諸法師明三世或有或無莫適 所定此亦是法中一段處所而有 無不泮情每慨之是以忽疏野懷聊試 孟浪言之誠知孟浪之言不足以會 理然肯矜之中欲有少許意子不能 嘿已輒疏條相呈匠者可為折衷余 以為三世一統循環為用過去雖滅 其理常在所以非如阿毗曇注 言五陰塊然猶若足之履地真足雖 往厥跡猶存當來如火之在木木中 欲言有火耶視之不可見欲言無耶 緣合火出經又云聖人見三世若其 無也聖無所見若言有耶則犯常嫌 明過去未來雖無眼對理恒相因苟 因理不絕聖見三世無所疑矣 什法師荅 雅論大通甚佳去來定無此作不通 佛說色陰三世和合總名為色五陰
趙城藏	日並可以當言笑 吾前試通聖人三達觀以諮什公公 尋有荅今并送往請此事皆是昔日 之意如今都無情懷如何矣 通三世論 曾問諸法師明三世或有或無莫適 所定此亦是法中一段處所而有 無不泮情每慨之是以忽疏野懷聊試 孟浪言之誠知孟浪之言不足以會 理然肯矜之中欲有少許意子不能 嘿已輒疏條相呈匠者可為折衷余 以為三世一統循環為用過去雖滅 其理常在所以非如阿毗曇注 言五陰塊然猶若足之履地真足雖 往厥跡猶存當來如火之在木木中 欲言有火耶視之不可見欲言無耶 緣合火出經又云聖人見三世若其 無也聖無所見若言有耶則犯常嫌 明過去未來雖無眼對理恒相因苟 因理不絕聖見三世無所疑矣 什法師荅 雅論大通甚佳去來定無此作不通 佛說色陰三世和合總名為色五陰

初雕藏	何者賢之為愚蓋由知而不知也愚者所知則少賢者所知則多而万物交加羣方緬瞻情性曉昧理趣深玄由其塗求其理既有曉昧之異遂成高下之差自此相傾品級殊峻窮其原本盡其宗極手相推仰應有所窮其路既窮無微不盡又不得謂不然也且五情各有分域耳目各有司存心運則形忘目用則耳廢何則情靈淺弱心慮難擾一念而無無由可至既不能無紛紜遽襲一念未成他端手起手起眾端復同前矣不相兼之由由於淺惑惑淺為病病於滯有不淺不惑出於無忘以此無得此無忘照自凡夫至于正覺始惑於不惑不兼至能無又不得謂不得也又具蟲友促舍靈靡二或朝生夕殞或不識春秋自斯而進脩短不一既有其短豈得無長虛用損年善攝增壽善而善焉得無之又不得謂之不然也生既可夭則壽不可無矣既無矣則生不可極形神之別斯既然矣形既可養神寧獨異神妙形靈較然有辯養形
再雕藏	何者賢之為愚蓋由知而不知也愚者所知則少賢者所知則多而万物交加羣方緬瞻情性曉昧理趣深玄由其塗求其理既有曉昧之異遂成高下之差自此相傾品級殊峻窮其原本盡其宗極手相推仰應有所窮其路既窮無微不盡又不得謂不然也且五情各有分域耳目各有司存心運則形忘目用則耳廢何則情靈淺弱心慮難擾一念而無無由可至既不能無紛紜遽襲一念未成他端手起手起眾端復同前矣不相兼之由由於淺惑惑淺為病病於滯有不淺不惑出於無忘以此無得此無忘照自凡夫至于正覺始惑於不惑不兼至能無又不得謂不然也又具蟲友促舍靈靡二或朝生夕殞或不識春秋自斯而進脩短不一既有其短豈得無長虛用損年善攝增壽善而善焉得無之又不得謂之不然也生既可夭則壽不可無矣既無矣則生不可極形神之別斯既然矣形既可養神寧獨異神妙形靈較然有辯養形
趙城藏	何者賢之為愚蓋由知而不知也愚者所知則少賢者所知則多而万物交加羣方緬瞻情性曉昧理趣深玄由其塗求其理既有曉昧之異遂成高下之差自此相傾品級殊峻窮其原本盡其宗極手相推仰應有所窮其路既窮無微不盡又不得謂不然也且五情各有分域耳目各有司存心運則形忘目用則耳廢何則情靈淺弱心慮難擾一念而無無由可至既不能無紛紜遽襲一念未成他端手起手起眾端復同前矣不相兼之由由於淺惑惑淺為病病於滯有不淺不惑出於無忘以此無得此無忘照自凡夫至于正覺始惑於不惑不兼至能無又不得謂不然也又具蟲友促舍靈靡二或朝生夕殞或不識春秋自斯而進脩短不一既有其短豈得無長虛用損年善攝增壽善而善焉得無之又不得謂之不然也生既可夭則壽不可無矣既無矣則生不可極形神之別斯既然矣形既可養神寧獨異神妙形靈較然有辯養形

初雕藏	墟周梁改俗白眉青蓋龜玉之價弗踰栖鳳卧龍魚水之交莫異加以識瑩苦空志排塵俗形雖廓廟器乃江湖是以屬歎牽絲興言世網辭同應陸調合張嚴嗟朱火之遽傳懸清波之速逝方應濯足從道洗耳辭榮九轉充虛四扉排疾然後尋八正以味真解十經而遣三患斯之德也寧下至哉貧道識鏡難清心塵易壅定甄花水戒非草繫才俟撒燭學謝傳燈內有愧於德充外无狎於人世是以淹滯丘寓形蓬柳端居子刃託志筠松測四序於風霜徂三旬於眺魄至夜迺聞山鳥仍代九成晝視遊魚聊追三子華戶弊粉既在原非病朱門結駟亦於我如雲所歎藤鼠易侵樹優難靜勞想驚頭倦思鷄足至於林 厥秋葉曾無獨覺之明谷響春鶯終切寡聞之歎忽承來問曲見光譽幽氣若蘭清音如玉誠復溢目致權而實撫膺多愧雖識謝天池未辯北溟之說而事同逕井慙聞東海之談所冀伊人於焉好我黃石匪遙結期明且白駒可繫用永終朝善敬清猷時
再雕藏	墟周梁改俗白眉青眼龜玉之價弗踰栖鳳卧龍魚水之交莫異加以識瑩苦空志排塵俗形雖廓廟器乃江湖是以屬歎牽絲興言世網辭同應陸調合張嚴嗟朱火之遽傳懸清波之速逝方應濯足從道洗耳辭榮九轉充虛四扉排疾然後尋八正以味真至哉貧道識鏡難清心塵易壅定甄花水戒非草繫才俟撒燭學謝傳燈內有愧於德充外无狎於人世是以淹滯丘寓形蓬柳端居子刃託志筠松測四序於風霜徂三旬於眺魄至迺夜聞山鳥仍代九成晝視遊魚聊追三子華戶弊粉既在原非病朱門結駟亦於我如雲所歎藤鼠易侵樹優難靜勞想驚頭倦思鷄足至於林 凋秋葉曾無獨覺之明谷響春鶯終切寡聞之歎忽承來問曲見光譽幽氣若蘭清音如玉誠復溢目致權而實撫膺多愧雖識謝天池未辯北溟之說而事同逕井慙聞東海之談所冀伊人於焉好我黃石匪遙結期明且白駒可繫用永終朝善敬清猷時因素札言不洗意報此何申
趙城藏	墟周梁改俗白眉青眼龜玉之價弗踰栖鳳卧龍魚水之交莫異加以識瑩苦空志排塵俗形雖廓廟器乃江湖是以屬歎牽絲興言世網辭同應陸調合張嚴嗟朱火之遽傳懸清波之速逝方應濯足從道洗耳辭榮九轉充虛四扉排疾然後尋八正以味真至哉貧道識鏡難清心塵易壅定甄花水戒非草繫才俟撒燭學謝傳燈內有愧於德充外无狎於人世是以淹滯丘寓形蓬柳端居子刃託志筠松測四序於風霜徂三旬於眺魄至迺夜聞山鳥仍代九成晝視遊魚聊追三子華戶弊粉既在原非病朱門結駟亦於我如雲所歎藤鼠易侵樹優難靜勞想驚頭倦思鷄足至於林 凋秋葉曾無獨覺之明谷響春鶯終切寡聞之歎忽承來問曲見光譽幽氣若蘭清音如玉誠復溢目致權而實撫膺多愧雖識謝天池未辯北溟之說而事同逕井慙聞東海之談所冀伊人於焉好我黃石匪遙結期明且白駒可繫用永終朝善敬清猷時

初雕藏	奉旨行狀 被旨自法教東漸 光時遂令上需憂被且自法教東漸 聖涉宋隆三被屏除五遭拜伏俱非休明 之代並是暴虐之君故使布令非經國之謨 非致良史之謂事理難還還襲舊 津伏惟 大王統維京甸攝御機衡 道俗來蘇繁務攸靜今法門擁閉聲 教莫傳據此靜障拔難之秋極溺扶 危之日僧等叫閭難及徒鶴望於九 重天階平登終栖遑於百慮所以干 冒陳款披露冀得俯被鴻私載垂提 治是則遵崇付屬清風被於九垓正 像更興景福光於四葉不任窮塞之 其具以啓聞塵擾之深惟知慙惕謹啓 四月二十五日 西明寺僧道宣等上榮國夫人楊氏 請論沙門不合拜俗啓一首 夫人帝后 崇正北大建福門造像書經祭相續僧 入出當華嚴經加僧等請門致書云 道宣等啓自三寶東漸六百餘年 四俗立歸戒之因五衆開福田之務 百王承至道之化方載扇惟聖之風 故得琛策知歸生靈迴向然以慧日 既隱千載有餘正行難登嚴科易
再雕藏	奉旨行狀 被旨自法教東漸 光時遂令上需憂被且自法教東漸 聖涉宋隆三被屏除五遭拜伏俱非休明之代並 是暴虐之君故使布令非經國之謨 非致良史之謂事理難還還襲舊 津伏惟 大王統維京甸攝御機衡 道俗來蘇繁務攸靜今法門擁閉聲 教莫傳據此靜障拔難之秋極溺扶 危之日僧等叫閭難及徒鶴望於九 重天階平登終栖遑於百慮所以干 冒陳款披露冀得俯被鴻私載垂提 治是則遵崇付屬清風被於九垓正 像更興景福光於四葉不任窮塞之 其具以啓聞塵擾之深惟知慙惕謹啓 四月二十五日 西明寺僧道宣等上榮國夫人楊氏 請論沙門不合拜俗啓一首 夫人帝后 崇正北大建福門造像書經祭相續僧 入出當華嚴經加僧等請門致書云 道宣等啓自三寶東漸六百餘年 四俗立歸戒之因五衆開福田之務 百王承至道之化方載扇惟聖之風 故得琛策知歸生靈迴向然以慧日 既隱千載有餘正行難登嚴科易
趙城藏	奉旨行狀 被旨自法教東漸 光時遂令上需憂被且自法教東漸 聖涉宋隆三被屏除五遭拜伏俱非休明之代並 是暴虐之君故使布令非經國之謨 非致良史之謂事理難還還襲舊 津伏惟 大王統維京甸攝御機衡 道俗來蘇繁務攸靜今法門擁閉聲 教莫傳據此靜障拔難之秋極溺扶 危之日僧等叫閭難及徒鶴望於九 重天階平登終栖遑於百慮所以干 冒陳款披露冀得俯被鴻私載垂提 治是則遵崇付屬清風被於九垓正 像更興景福光於四葉不任窮塞之 其具以啓聞塵擾之深惟知慙惕謹啓 四月二十五日 西明寺僧道宣等上榮國夫人楊氏 請論沙門不合拜俗啓一首 夫人帝后 崇正北大建福門造像書經祭相續僧 入出當華嚴經加僧等請門致書云 道宣等啓自三寶東漸六百餘年 四俗立歸戒之因五衆開福田之務 百王承至道之化方載扇惟聖之風 故得琛策知歸生靈迴向然以慧日 既隱千載有餘正行難登嚴科易

<寫眞 26> 廣弘明集 第25卷 第28張

初雕藏	中臺司禮太常伯隴西王博又大夫 孔志約等議一首 竊以凡百在位雖存教上之道當其 為師尚有不自之義况佛之垂法事 起俗表別疑同於毀傷雖錫異乎替 級出家非色養之境離塵豈榮名之 地功深濟度道極崇高何必破彼玄 門牽斯儒轍披釋服而為孔拜慶俗 塗而當法禮存其教而毀其道求其 福而屈其身再三研覈謂乖通理又 道之為教雖全駭膚出家超俗其歸 一揆加以遠標天攝大啓皇基義藉 尊嚴式符高尚並仍舊貫元點彝章 如必改作恐非稽古雖君親崇教用 軒神衷道法難虧還當睿想既奉詢 蒞之詔敢聲塵獄之誠懼不愜允追 深戰惕 司元 霄彤二氣嚴父稱莫大之 尊資用五杼元后標則天之貴至於 擊跪曲拳之禮陶化之侶同遵服勤 就養之方懷生之倫共紀凡在君父 理絕名言而老擇二門出塵遺俗虛元一旨 雖有會雲瑞見毖耶聞慈悲之偈氣 浮函谷開道德之篇處木腐之間養
再雕藏	中臺司禮太常伯隴西王博又大夫 孔志約等議一首 竊以凡百在位雖存教上之道當其 為師尚有不自之義况佛之垂法事 起俗表別疑同於毀傷雖錫異乎替 級出家非色養之境離塵豈榮名之 地功深濟度道極崇高何必破彼玄 門牽斯儒轍披釋服而為孔拜慶俗 塗而當法禮存其教而毀其道求其 福而屈其身再三研覈謂乖通理又 道之為教雖全駭膚出家超俗其歸 一揆加以遠標天攝大啓皇基義藉 尊嚴式符高尚並仍舊貫元點彝章 如必改作恐非稽古雖君親崇教用 軒神衷道法難虧還當睿想既奉詢 蒞之詔敢聲塵獄之誠懼不愜允追 深戰惕 司元 議霄彤二氣嚴父稱莫大之 尊資用五杼元后標則天之貴至於 擊跪曲拳之禮陶化之侶同遵服勤 就養之方懷生之倫共紀凡在君父 理絕名言而老擇二門出塵遺俗虛元一旨 雖有會雲瑞見毖耶聞慈悲之偈氣 浮函谷開道德之篇處木腐之間養
趙城藏	中臺司禮太常伯隴西王博又大夫 孔志約等議一首 竊以凡百在位雖存教上之道當其 為師尚有不自之義况佛之垂法事 起俗表別疑同於毀傷雖錫異乎替 級出家非色養之境離塵豈榮名之 地功深濟度道極崇高何必破彼玄 門牽斯儒轍披釋服而為孔拜慶俗 塗而當法禮存其教而毀其道求其 福而屈其身再三研覈謂乖通理又 道之為教雖全駭膚出家超俗其歸 一揆加以遠標天攝大啓皇基義藉 尊嚴式符高尚並仍舊貫元點彝章 如必改作恐非稽古雖君親崇教用 軒神衷道法難虧還當睿想既奉詢 蒞之詔敢聲塵獄之誠懼不愜允追 深戰惕 司元 議霄彤二氣嚴父稱莫大之 尊資用五杼元后標則天之貴至於 擊跪曲拳之禮陶化之侶同遵服勤 就養之方懷生之倫共紀凡在君父 理絕名言而老擇二門出塵遺俗虛元一旨 雖有會雲瑞見毖耶聞慈悲之偈氣 浮函谷開道德之篇處木腐之間養

初雕藏	別駭同於毀傷振錫異乎簪蔽出家 非色養之境離塵豈榮名之地功深 濟度道極崇高何必破彼玄門牽斯 偏轍披法服而為俗拜踐孔門而行 釋孔存其教而毀其道求其福而屈 其身詳稽理要恐有未便恐有未便 雖全長當出家恐有未便其按加以逐掠 天構大啓皇基義藉尊嚴式符高尚 惟此二教相洽自久爰暨我唐徽風 益扇雖王猷退暢實賴天功而聖輪 常轉式資冥助今儻一朝改舊元益 將來於恒沙之劫起毫塵之累則普天 率土灰身粉骨何以塞有隱之責獨 不忠之罪與其失於改創不若謬於 脩文孔子曰因人所利而利之老子曰 聖人無常心以百姓心為心二教所 利和益多矣百姓之心歸信衆矣草 其利非因利之道非其本心非无 心之謂請遵故實不拜為允伏惟 陛下德掩上皇葉光下問君親崇敬 雖啓神衷道法難虧還當審想既 奉詢菊之旨敢聲塵獄之誠懼不折 衷追深戰惕 一三百五十四人議請拜
再雕藏	別駭同於毀傷振錫異乎簪蔽出家 非色養之境離塵豈榮名之地功深 濟度道極崇高何必破彼玄門牽斯 偏轍披法服而為俗拜踐孔門而行 釋孔存其教而毀其道求其福而屈 其身詳稽理要恐有未便恐有未便 雖全長當出家恐有未便其按加以逐掠 天構大啓皇基義藉尊嚴式符高尚 惟此二教相洽自久爰暨我唐徽風 益扇雖王猷退暢實賴天功而聖輪 常轉式資冥助今儻一朝改舊元益 將來於恒沙之劫起毫塵之累則普天 率土灰身粉骨何以塞有隱之責獨 不忠之罪與其失於改創不若謬於 脩文孔子曰因人所利而利之老子曰 聖人無常心以百姓心為心二教所 利和益多矣百姓之心歸信衆矣草 其利非因利之道非其本心非无 心之謂請遵故實不拜為允伏惟 陛下德掩上皇葉光下問君親崇敬 雖啓神衷道法難虧還當審想既 奉詢菊之旨敢聲塵獄之誠懼不折 衷追深戰惕 一三百五十四人議請拜
趙城藏	別駭同於毀傷振錫異乎簪蔽出家 非色養之境離塵豈榮名之地功深 濟度道極崇高何必破彼玄門牽斯 偏轍披法服而為俗拜踐孔門而行 釋孔存其教而毀其道求其福而屈 其身詳稽理要恐有未便恐有未便 雖全長當出家恐有未便其按加以逐掠 天構大啓皇基義藉尊嚴式符高尚 惟此二教相洽自久爰暨我唐徽風 益扇雖王猷退暢實賴天功而聖輪 常轉式資冥助今儻一朝改舊元益 將來於恒沙之劫起毫塵之累則普天 率土灰身粉骨何以塞有隱之責獨 不忠之罪與其失於改創不若謬於 脩文孔子曰因人所利而利之老子曰 聖人無常心以百姓心為心二教所 利和益多矣百姓之心歸信衆矣草 其利非因利之道非其本心非无 心之謂請遵故實不拜為允伏惟 陛下德掩上皇葉光下問君親崇敬 雖啓神衷道法難虧還當審想既 奉詢菊之旨敢聲塵獄之誠懼不折 衷追深戰惕 一三百五十四人議請拜

<寫眞 28> 廣弘明集 第26卷 第16張

初雕藏	今日大德僧尼今日義學僧尼今日寺官宜自警戒嚴淨徒眾若其懈怠不尊佛教猶是梁國編戶一民弟子今日力能治制若猶不依佛法是諸僧官宜依法問京師項年講大涅槃經法輪相續便是不斷至於聽受動有千計今日重令法雲法師為諸僧尼講四相品四中少分諸僧尼常聽足講四相品四中少分諸僧尼常聽涅槃經為當曾聞此說為當不聞若已曾聞不應違背若未曾聞今宜憶持佛經中究竟說斷一切肉迺至自死者亦不許食何況非自死者諸僧尼出家名佛弟子云何今日不從師教經言食肉者斷大慈種何謂斷大慈種凡大慈者皆令一切眾生同得安樂若食肉者一切眾生皆為怨對同不安樂若食肉者是遠離聲聞法若食肉者是遠離辟支佛法若食肉者是遠離菩薩法若食肉者是遠離菩薩道若食肉者是遠離佛果若食肉者是遠離大涅槃若食肉者是障四禪法若食肉者是障四空法若食肉者是障慧法若食肉者是障定法若食肉者是障慧法若
再雕藏	今日大德僧尼今日義學僧尼今日寺官宜自警戒嚴淨徒眾若其懈怠不尊佛教猶是梁國編戶一民弟子今日力能治制若猶不依佛法是諸僧官宜依法問京師項年講大涅槃經法輪相續便是不斷至於聽受動有千計今日重令法雲法師為諸僧尼講四相品四中少分諸僧尼常聽足講四相品四中少分諸僧尼常聽涅槃經為當曾聞此說為當不聞若已曾聞不應違背若未曾聞今宜憶持佛經中究竟說斷一切肉迺至自死者亦不許食何況非自死者諸僧尼出家名佛弟子云何今日不從師教經言食肉者斷大慈種何謂斷大慈種凡大慈者皆令一切眾生同得安樂若食肉者一切眾生皆為怨對同不安樂若食肉者是遠離聲聞法若食肉者是遠離辟支佛法若食肉者是遠離菩薩法若食肉者是遠離菩薩道若食肉者是遠離佛果若食肉者是遠離大涅槃若食肉者是障四禪法若食肉者是障四空法若食肉者是障慧法若食肉者是障定法若食肉者是障慧法若
趙城藏	今日大德僧尼今日義學僧尼今日寺官宜自警戒嚴淨徒眾若其懈怠不尊佛教猶是梁國編戶一民弟子今日力能治制若猶不依佛法是諸僧官宜依法問京師項年講大涅槃經法輪相續便是不斷至於聽受動有千計今日重令法雲法師為諸僧尼講四相品四中少分諸僧尼常聽足講四相品四中少分諸僧尼常聽涅槃經為當曾聞此說為當不聞若已曾聞不應違背若未曾聞今宜憶持佛經中究竟說斷一切肉迺至自死者亦不許食何況非自死者諸僧尼出家名佛弟子云何今日不從師教經言食肉者斷大慈種何謂斷大慈種凡大慈者皆令一切眾生同得安樂若食肉者一切眾生皆為怨對同不安樂若食肉者是遠離聲聞法若食肉者是遠離辟支佛法若食肉者是遠離菩薩法若食肉者是遠離菩薩道若食肉者是遠離佛果若食肉者是遠離大涅槃若食肉者是障四禪法若食肉者是障四空法若食肉者是障慧法若食肉者是障定法若食肉者是障慧法若

初雕藏	食肉者是障信根若食肉者是障進根 若食肉者是障念根若食肉者是障定 根若食肉者是障慧根舉要為言障三 十七道品若食肉者是障四真諦若食 肉者是障十二因緣若食肉者是障六 波羅蜜若食肉者是障四弘誓願若食 肉者是障四攝法若食肉者是障四無 量心若食肉者是障四無所畏若食肉 者是障三昧若食肉者是障八解脫 若食肉者是障九次第定若食肉者是 障六神通若食肉者是障百八三昧 若食肉者是障一切三昧若食肉者是 障海印三昧若食肉者是障首楞 嚴三昧若食肉者是障金剛三昧若 食肉者是障五眼若食肉者是障十 力若食肉者是障四無所畏若食肉 者是障十八不共法若食肉者是障 一切種智若食肉者是障无上菩提 何以故若食肉者障菩提心無有菩 薩法以食肉故障不能得初地以食肉 故障不能得二地乃至障不能得十 地以无菩薩法故無四无量心无四 無量心故无有大慈大悲以是因緣
再雕藏	食肉者是障信根若食肉者是障進 根若食肉者是障念根若食肉者是 障定根若食肉者是障慧根舉要為 言障三十七道品若食肉者是障四 真諦若食肉者是障十二因緣若食 肉者是障六波羅蜜若食肉者是障 四弘誓願若食肉者是障四攝法若 食肉者是障四無所畏若食肉者是 障三昧若食肉者是障八解脫若 食肉者是障九次第定若食肉者是 障六神通若食肉者是障百八三昧 若食肉者是障一切三昧若食肉者 是障海印三昧若食肉者是障首楞 嚴三昧若食肉者是障金剛三昧若 食肉者是障五眼若食肉者是障十 力若食肉者是障四無所畏若食肉 者是障十八不共法若食肉者是障 一切種智若食肉者是障无上菩提 何以故若食肉者障菩提心無有菩 薩法以食肉故障不能得初地以食肉 故障不能得二地乃至障不能得十 地以无菩薩法故無四无量心无四 無量心故无有大慈大悲以是因緣
趙城藏	食肉者是障信根若食肉者是障進 根若食肉者是障念根若食肉者是 障定根若食肉者是障慧根舉要為 言障三十七道品若食肉者是障四 真諦若食肉者是障十二因緣若食 肉者是障六波羅蜜若食肉者是障 四弘誓願若食肉者是障四攝法若 食肉者是障四無所畏若食肉者是 障三昧若食肉者是障八解脫若 食肉者是障九次第定若食肉者是 障六神通若食肉者是障百八三昧 若食肉者是障一切三昧若食肉者 是障海印三昧若食肉者是障首楞 嚴三昧若食肉者是障金剛三昧若 食肉者是障五眼若食肉者是障十 力若食肉者是障四無所畏若食肉 者是障十八不共法若食肉者是障 一切種智若食肉者是障无上菩提 何以故若食肉者障菩提心無有菩 薩法以食肉故障不能得初地以食肉 故障不能得二地乃至障不能得十 地以无菩薩法故無四无量心无四 無量心故无有大慈大悲以是因緣

